



월 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November
20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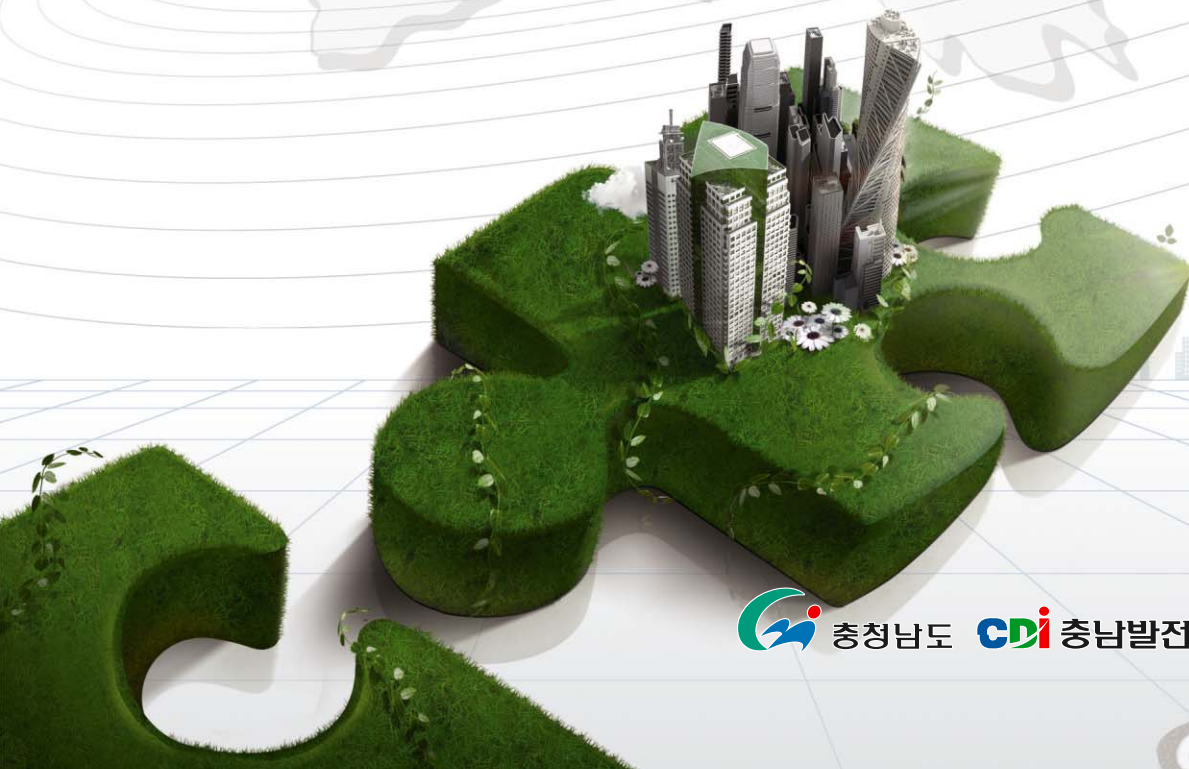
ISSUE 최근 도시재생 및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새정부의 지방과학기술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경제동향 경기, 산업활동, 소비 및 물가, 수출입, 고용, 금융, 건설 및 부동산

경제일지

경제지표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2012년 11월호

발 행 인 안희정 · 박진도

편집위원장 남궁영 · 성태규

편집위원 맹부영, 임재영

집 필 진 총괄 임형빈

경제동향 백운성, 신동호, 김양중, 홍성호, 김윤아, 이윤경

경제일지 김현철, 최재령, 김범수

외부집필진 임정민(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발 행 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연 락 처 (041) 840-1165 팩스(041) 840-1129

월간 충남경제의 파일은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와

충남발전연구원(<http://www.cdi.re.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ISSN 2093-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CONTENTS

ISSUE	최근 도시재생 및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3
	새정부의 지방과학기술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16
경제동향	충남경제동향 (요약)	27
	1. 경기	5. 고용
	2. 산업활동	6. 금융
	3. 소비 · 물가	7. 건설 · 부동산
	4. 수출입	
	해외경제동향 (요약)	45
	1. 미국	3. 일본
	2. 중국	4. 유로지역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53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61
	2. 충남 주요경제지표	63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65
부록	1.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81
	2.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83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최근 도시재생 및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정책변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임 정 민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1. 머리말

2000년대 중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은 부동산 경기과열과 함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도시재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비리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추진의 지연 또는 중단으로 인하여 정비구역내 주거환경의 슬럼화 및 우범지대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사업 찬반 주민간의 갈등, 행위제한에 따른 개별 주거환경 개선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 발생으로 정비구역내 주민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은 구역해제에 대한 요구를 비롯하여 사업성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비율 및 기반시설부담 완화, 공공의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과다하게 지정된 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사업 추진여건 개선, 공공의 역할강화 등 부진사업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법 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T/F(12.6~10)를 운영하여 정비사업 절차합리화 및 비용절감,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뉴타운·재개발 사업조정 후속방안, 수요 대응형 정비방식의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본 글에서는 먼저 충청남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최근 개정된 법제도의 주요 내용과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주요 정책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충청남도가 나아가야 할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2. 도시재정비사업 추진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정비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2,173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 961개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531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02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379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다. 전체 구역 중 서울 등 수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구역이 1,148개로 52.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수도권의 비율이 240개 구역(79.5%)으로 지방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전국 379개 구역 중 지방의 비율이 319개 구역(84.2%)으로 지방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충남은 총 59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 20개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9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4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6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다.

전국 재정비촉진지구는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총 67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정비계획결정이 완료된 지구는 64개 지구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 31개 지구 등 수도권에 48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충남에는 아산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1개소가 지정(2007.12.10)되어 있다. 아산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는 2010년 7월 30일 촉진계획이 결정되었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라 당초 재정비 촉진사업 7개

소(33만5,335㎡) 가운데 3개소(11만3,553㎡)를 제외한 4개 구역이 해제되거나 준치관리구역으로 해제·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다.

전국 정비사업 추진현황(2011.12.31 기준)

구분	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전국	2,173 (482)	961 (290)	531 (14)	302 (178)	379 (0)
수도권	1,148 (378)	564 (223)	284 (8)	240 (147)	60 (0)
서울	581 (221)	249 (122)	147 (8)	153 (91)	32 (0)
경기	391 (142)	199 (91)	111 (0)	63 (51)	18 (0)
인천	176 (15)	116 (10)	26 (0)	24 (5)	10 (0)
지방	1,025 (104)	397 (67)	247 (6)	62 (31)	319 (0)
부산	285 (30)	163 (22)	41 (0)	16 (8)	65 (0)
광주	51	17	4	4	26
대전	103 (53)	55 (30)	14 (2)	25 (21)	9 (0)
대구	223 (12)	69 (10)	107 (2)	6 (0)	41 (0)
울산	19	7	5	1	6
강원	40 (9)	8 (5)	10 (2)	2 (2)	20 (0)
경남	60	21	19	1	19
경북	57	5	20	0	32
전남	54	0	6	1	47
전북	54	20	9	1	24
충북	18	12	3	1	2
충남	59	20	9	4	26
제주	2	0	0	0	2

* ()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업구역 수.

자료 : 국토해양부 내부 통계자료.

전국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추진위 승인단계가 626개 구역(28.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조합 설립인가 단계가 437개 구역(20.1%), 사업시행인가단계가 375개 구역(17.3%)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해보면 착공단계에서 수도권은 79개 구역, 지방은 235개 구역으로 지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은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수

도권에 비하여 지방에 구역수가 많고 공공부문의 정비사업으로 현지개발방식이 대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수도권에 비하여 지방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국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현황(2011.12.31 기준)

구분	계	정비구역	추진위	조합	사업시행	관리처분	착공
전국	2,173 (482)	322 (219)	626 (130)	437 (88)	375 (19)	99 (13)	314 (13)
수도권	1,148 (378)	194 (137)	333 (110)	287 (86)	192 (19)	63 (13)	79 (13)
지방	1,025 (104)	128 (82)	293 (20)	150 (2)	183 (0)	36 (0)	235 (0)
대전	103 (53)	49 (43)	33 (9)	11 (1)	6 (0)	1 (0)	3 (0)
충북	18	0	7	9	2	0	0
충남	59	5	16	10	17	0	11

* ()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업구역 수.

자료 : 국토해양부 내부 통계자료.

충청남도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총 20개 구역 중 추진위 승인단계에 12개 구역이 머무르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정비사업 유형별 · 단계별 추진현황(2011.12.31 기준)

구분	계	정비구역	추진위	조합	사업시행	관리처분	착공
재개발	20	1	12	6	1	0	0
재건축	9	0	1	3	4	0	1
주거환경	26	4	—	—	12	—	10
도시환경	4	0	3	1	0	0	0
총계	59	5	16	10	17	0	11

- 1) 2011년말 현재 전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단계별 추진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착공단계에 있는 구역 수는 수도권 7개 구역, 지방이 200개 구역으로 지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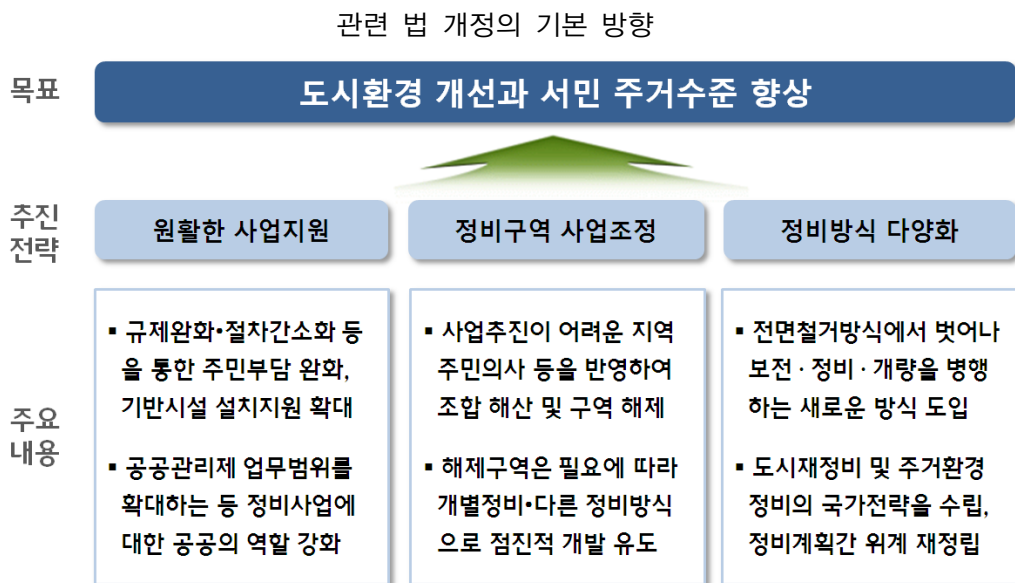
전국 주거환경개선사업 단계별 추진현황(2011.12.31 기준)

구분	계	정비구역	사업시행	착공
전국	379	38	134	207
수도권	60	8	45	7
지방	319	30	89	200

3. 관련법 개정의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연·중단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관련 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크게 ①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② 뉴타운 등 정비구역 사업조정, ③ 정비사업 다양화 및 관련 계획의 체계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중심의 정비방식에 공공관리제 확대 적용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비사업방식 도입, 공급자 중심의 재정비 촉진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수요에 따라 정비사업을 신축적으로 조정·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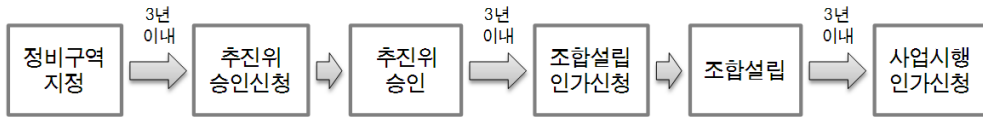


관련 법 개정 중에서 정비구역 해제, 사업방식 다양화, 정비계획 체계정비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비사업 해제절차 및 해제된 정비구역 관리방안 마련

①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조합해산 및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주민요구에 의한 구역해제) 일정비율 이상 주민 동의시 추진위·조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와 동시에 정비구역 해제
 - 추진위·조합 설립 동의자의 1/2~2/3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1/2 동의
 - 정비구역이 조합설립 이전에 해제된 경우,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일몰제 도입) 신규로 추진되는 정비구역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 자동해제
 - 기존 정비구역 중 추진위가 미 구성된 구역은 개정법 시행 후 일정 기간 내 추진위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역 자동해제(일몰제 적용)



②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

- 구역해제시 정비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용도지역, 기반시설 설치 등)은 구역지정 이전으로 환원
 - 다만, 뉴타운지구내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용도지역 등은 환원하되,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준치
 - 자치단체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운영

③ 뉴타운 해제지역을 개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지원

- 뉴타운 해제지역 내 사업을 개별 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추진위·조합은 승계토록 조치
 - 추진위·조합원의 1/2~2/3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1/2 동의
 - 뉴타운 해제지역이 주거환경관리사업 전환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검토

2) 정비사업방식 다양화

① 새로운 정비사업방식 도입

- (주거환경관리사업) 양호한 노후단독주택지의 경우에 보전·관리·정비를 병행할 수 있는 정비방식 도입, 서울시 휴먼타운
 - 자치단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존의 가로구획을 유지, 블록단위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시행
 - 대상지 :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이내 지역, 기존 주택호수 30~100호 또는 면적 1천~5천㎡
 - 추진방법 : 주민이 직접 정한 구역에서 토지소유자 90% 동의를 얻어 추진
 - 주택규모 등 : 기존 주택호수 이상을 공급하고, 건축법상의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사선, 일조) 등에 대한 특례 적용
- 세입자 대책 및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폐지하고, 필요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시행하도록 유도

② 기존 정비사업의 추진방식 다양화

- (주거지 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LH 등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처분 방식 도입
 - (현행) 현지개량 방식, 공동주택(수용)방식 ⇒ (개선) 관리처분방식 추가
- (상업지 관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상가 신·개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도심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지개량 방식 도입
 - (현행)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 (개선) 현지개량 방식 추가

3) 정비계획 체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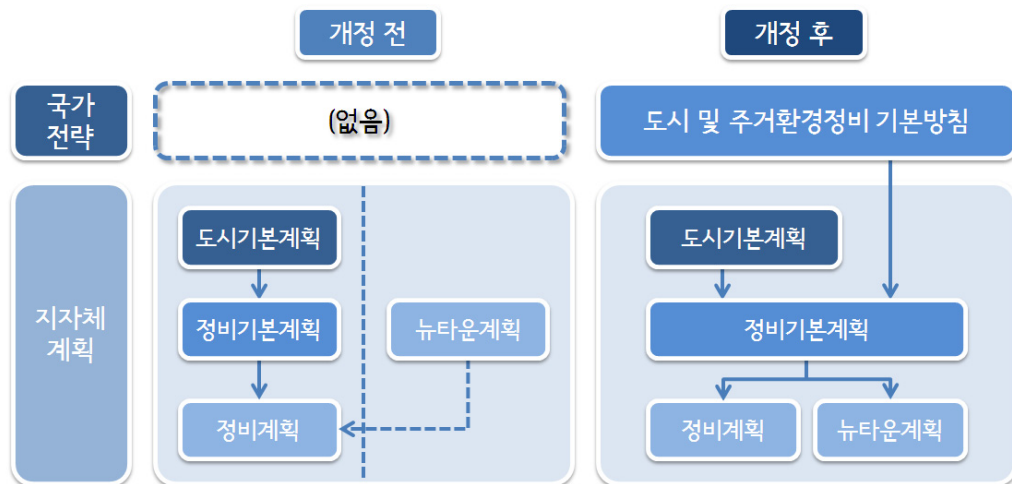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

- 국토부 장관은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중장기 기본방향 제시 (5년 단위 재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기 발전계획, 자치단체 정비 기본계획 수립방향, 도시재정비 관련 민간사업 지원방안 등

② 정비사업 계획간 체계적 위계 정립

- 자치단체별로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중앙정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방침」에 부합하게 수립
- 뉴타운계획은 상위 도시계획의 범위에서 수립토록 정비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조정

정비사업 관련 계획간 위계 정립



③ 정비사업 관련 계획 수립시 종합적인 도심 활성화 요소 반영

-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생활권별 보전·정비·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정비계획 수립시 도심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유도

4. 최근 관련 정책추진 동향

1) 도시재생 관련 법안 발의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정부의 현행 제도는 대도시 중심의 개발이익을 전제로 정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 비물리적 사업을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도심과 비롯한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서병수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양승조 의원 등이 발의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박주선 의원 등이 발의한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있다.

도시재생 관련 법안 발의 현황

법안명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자	서병수 의원(34인)	양승조 의원(11인)	박주선 의원(15인)
발의일	2012.6.5	2012.5.30	2012.6.4
주요 내용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해 계획 및 전담조직의 체계화, 공공의 역할 및 지원 강화	중심시가지(원도심)의 회복 및 개선	구도심 재생을 통한 도시기능의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
비고	18대 국회에서 폐기 재발의 (2011.11.10, 현기환 의원 대표발의)	18대 국회에서 폐기 재발의 (2011.11.30,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자료 : 박병순, 도시설계학회 도시재생연구위원회 세미나 발표자료(2012.10.30), p.41.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제2조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의 신설에 따라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을 통하여 주거지 정비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착수하였다.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국가정책방향,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노후불량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등이 남길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T/F(12.6~10)를 구성하여 정비사업 재원조달방안,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 및 비용절감,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영세가옥주·세입자 배려와 재정착률 제고, 뉴타운·재개발 사업조정 후속방안, 수요대응형 정비방식의 활성화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기본방침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3)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정비방안 마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정비사업 부진으로 주거환경 악화가 심화되고 일부 지역은 슬럼화 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비 등을 국고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지개량 방식의 경우 주민의 자발적 주택개량 실적이 저조하고 공동주택방식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시행자인 LH의 재정상황 악화로 사업이 지연·중단되어 노후주거지 정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대책 및 지원정책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인구유출, 산업쇠퇴 등 도시 성장 변환기에 직면한 지방 중소도시 노후주거지의 종합적 실태파악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이 수행 중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정비의 기본방향 설정과 함께 중점 추진 과제로 현행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사업의 개선을 통한 중소도시 주거지 정비 촉진 방안, 지방중소도시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주거지 정비방식 도입방안, 공공(중앙 및 지방정부)지원 확대방안, 소형·저렴주택 멸실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에 대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단계 국고지원사업으로 2001~2005년까지 전국 486개 지구에 1조 6천억원을 지원하였고, 2단계 국고지원사업이 2005~2013년까지 전국 371개 지구에 2조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3단계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단계 국고지원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 여건의 변화 전망 및 최근의 ‘복지’패러다임에도 부합되는 새로운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과평가 및 심층사례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선정기준 수립 및 3단계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5.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한 도시주거환경을 정비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수도권과 비교하여 부진하며 지역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행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대규모 개발이익을 전제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에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의 경기침체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도시재생 및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정책변화는 충청남도과 같은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관심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대하여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몇 가지 충청남도의 대응과제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중소도시의 효율적 도시관리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도심 인구밀도 감소 및 도시외곽확산을 방지하고, 도심 및 공공교통을 중심축으로 도시기능을 재배치하여 향후 도시스프롤에 따른 비효율적 도시관리비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거시적 차원의 도시관리 효율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충청남도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비사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도부터 3단계 국고지원사업의 추진이 예상되는 만큼 구역선정을 위한 사전검토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50만 이하 도시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50만 이하 도시의 체계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도시규모에 적합한 관련 계획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라 앞으로 충청남도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보다는 소단위 점진적 주택개량사업의 추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 법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소단위 정비사업 및 개별 주택개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아직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역의 수요에 대응한 선행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토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사업, 지식경제부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개별 부처에서 추진되는 주택개보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하여 주택개량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및 해피하우스와 같은 단독주택관리기구의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규모 주택개량·건설사업의 활성화는 지역 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별 주택개보수 자금지원사업

구분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주거현물사업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부처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대상	취약계층 중 자가주택 보유자	기초수급자 중 자가주택 보유자	자/차가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액	600만원 (국비 80%)	200만원	200만원 (국비 60만원, 지방비 60만원, 자부담 80만원)	100만원
2012년 예산	300억원	240억원	1만호/60억원	310.8억원

자료 : '지방 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자료(2012), p.48.

다음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도비사업의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도시활력증진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국·도비사업의 추진 전에 주민의식향상, 주민조직육성, 일자리 창출 등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를 선행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모델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 사업의 사업이 단순히 물리적 환경정비에 끝나지 않고, 지역재생 및 커뮤니티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정비, 주택개량, 마을만들기 사업 등 도시재생 및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정책들은 주거복지서비스와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많은 선진국들이 도시재생을 주거복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한정된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하여 주거복지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최종 창구인 지자체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2011), 정비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임정민(2011), 도시재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도시재생법제 개편방향, 울산발전 33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새정부의 지방과학기술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백 운 성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의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이러한 과학기술 수준이 곧 한나라의 국가경제력 수준을 반영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권과 상관없이 R&D투자와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이라는 공간적 개념이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국가차원보다는 지역차원으로 경제활동의 핵심단위가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뿐만 아닌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에 있어서도 5+2광역경제권 체제 구축을 통한 특성화된 지역발전, 지역간 상생협력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라는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과학기술정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동향

현재는 지방과학기술육성정책, 지역산업·전략산업 육성 등의 용어와 정책이 일반화되었지만, 이러한 지역산업과 지방과학기술육성정책의 추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0년대 후반에 와서야 비로소 지방과학기술 및

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국가 및 지역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적인 투자를 시작하였다.

지역산업 및 R&D지원사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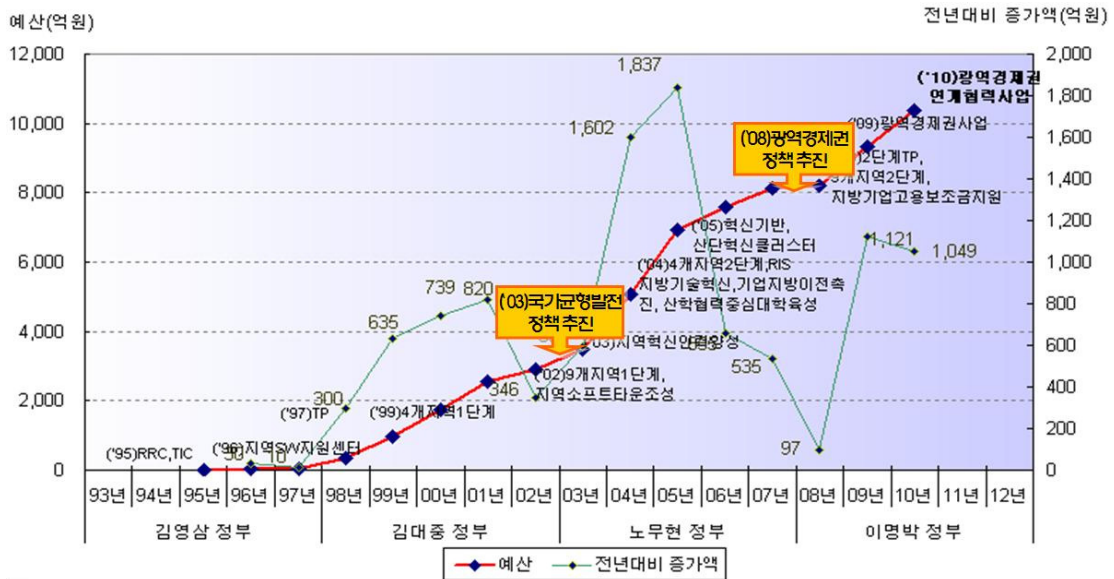
	'95 ~ '01	'02 ~ '07	'08 ~ '09	'10 ~
산업혁신	4개 지역 1단계 • 지역진흥기반구축 • 지역특화기술개발 • 기업지원서비스	4+9지역전략산업진흥 • 4개 지역 2단계 • 9개 지역 1단계 • 지역혁신기반구축	Post 4+9 • 4개 지역 3단계 • 9개 지역 2단계 • 지방기술혁신R&D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 Post 4+9 • 테크노파크 2단계 • 지방기술혁신(R&D)
산학협력	TP TIC	지역특화 산업 육성 사업 RIC TIC RRC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역특화 산업육성 사업 RIC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RIC, 지자체연구소 통합) 산학협력 중심대학
기타	지역S/W 산업진흥 기업지방 이전촉진	지역S/W 산업진흥 기업지방 이전촉진	지역S/W 산업진흥 기업지방 이전촉진 지방고용 촉진보조	지역투자촉진 • 기업지방이전촉진 • 지방기업고용촉진보조 대덕 특구 S/W 진흥
이슈	• [예산] '95(10억) → '01(644억) • 'TP 조성시작('97~) • 4개지역 1단계('99~)	• [예산] '02(1,378억) → '07(8,112억) • 9개 지역 1단계('02~) •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04~)	• [예산] '08(8,209억) → '09(9,330억) • Post 4+9 출범('08. 9) • 지방고용촉진보조 신규지원 • TP 2단계 지원('08~)	• [예산]'10(1조 379억) • 지역산업 지원사업 개편 •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1998년부터 구상을 시작하여 2002년 시·도별 전략산업의 선정, 테크노파크의 설립 등 산업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2004년부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기업 지원서비스 확대, 지역혁신기반 확충 등을 통해 현재의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주도형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지역주도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역 R&D투자재원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효율적인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제3차 계획(2008년~2012년)까지 진행되고 있고 제4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최근에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선도산업 추진과 더불어 지역의 경쟁과 자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R&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577전략을 통해 지역혁신역량구축

을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의 동력확대와 중앙정부-지자체 공조를 통한 지역 R&D자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06년 각각 25.4%와 28.4%였던 총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수의 지역비중을 '12년까지 30%로 확대하고 과학기술관련 예산비중을 '06년 기준 0.3%에서 '12년 3%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 및 R&D지원사업의 예산추이



지방과학기술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지역R&D를 위한 종합조정체계의 미비

이러한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R&D 추진체계 상의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이 발생해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우며, 중앙과 지역간 유기적인 연계 역시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크게 중앙차원과 지역차원의 문제로 크게 볼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차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국가 전체차원에서 어떻게 수립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심의하고 있다. 지역발

전위원회는 지역발전계획, 광역경제권발전 계획 등을 통해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다만 예산상에 있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모든 R&D 사업을, 지역발전위원회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상사업을 좀 더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는 지역기반이 잘 마련된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구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설립목적	정부과학기술사업 수행주체 다원화 등에 따른 국가과학기술분야 최고의사결정기구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
설립	1999년	2003년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위상	대통령 소속 상설행정위원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조직	본회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협의회 *지역별 조직 없음	본위원회와 전문 및 특별위원회 *광역별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운영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관련 시책 및 사업의 조정 -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 - 지자체간 과학기술 교류 협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 기본방향 및 관련정책의 조정 -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관리평가 등

자료 : 차두원 외(2011년)에서 재구성.

결국 두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지역차원의 과학기술정책에 있어 기능의 중복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과학기술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지역적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발전위원회의 과학기술분야를 강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지역기능을 강화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총괄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차원의 추진체계상 문제점이다. 현재 대다수의 시도에서 조례에 의해 지방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주요계획 및 사업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내에서 중앙정부지원 및 자체 R&D의 종합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있다. 이러한 것은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받

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R&D지원기구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몇몇 시도에서 연구개발지원단, TP전략기획단 등의 R&D지원을 위한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과학기술분야를 총괄 조정하기에는 사업분야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과학기술위원회와 상호 역할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의존형 지역R&D투자의 구조적 한계

일반적으로 지역 R&D라고 하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직접 시행하는 R&D사업, ②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R&D사업, ③ 정부 R&D 중 지역에서 실제 집행되는 R&D사업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R&D사업으로 일컫는다²⁾.

최근의 지자체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지자체 총 예산대비 과학기술 관련 예산 비중은 최근 5년간 3%이하를 보이고 있다.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지역R&D 예산은 2009년 큰 폭 감소를 보였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예산삭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시도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이 마무리되고 5+2 광역경제권계획으로 확대·전환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고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즉,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시·도의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함과 함께 지자체 역시 시·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R&D예산을 확대하여 왔지만, 시·도의 전략산업과는 별개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치우쳐 시·도 차원에서는 R&D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지자체 과학기술예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지자체 총예산(A)	72,366,816	81,004,629	88,857,762	85,028,869
지자체 과학기술관련 예산(B)	1,628,322	1,921,034	2,663,062	1,108,873
지자체 총예산 대비 과학기술 관련 예산비중(B/A)	2.3	2.4	3.0	1.3
중앙정부 R&D사업 지자체 매칭비율	2.2	2.6	2.2	1.9

자료 : 차두원 외(2011)에서 재인용.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9.

즉, 정책변화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자체적인 과학기술활성화보다는 단기적 사업 유치 및 성과창출 목적의 응용개발 중심의 R&D, 일반목적사업 및 중앙정부 기획주도 사업인 공모사업에 치중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재원의존도, 지자체의 예산부족, 광역사업의 확대 등은 지자체로 하여금 독립적인 R&D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타 산업에 비해 낮은 R&D사업 예산순위, 재원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지역과학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예산지원의 방식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앙정부 R&D사업 지자체 매칭규모 VS 지자체 자체 R&D사업 투자규모(2010)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정부 R&D사업 지자체 매칭 규모	지자체 자체 R&D사업 투자 규모
서울특별시	12,775 (29)	31,706 (71)
부산광역시	13,701 (82)	2,939 (18)
대구광역시	37,122 (83)	7,400 (17)
인천광역시	3,744 (63)	2,167 (37)
광주광역시	5,163 (70)	2,165 (30)
대전광역시	7,716 (50)	7,814 (50)
울산광역시	4,311 (61)	2,794 (39)
경기도	21,539 (40)	32,939 (60)
강원도	8,870 (72)	3,509 (28)
충청북도	6,100 (83)	1,256 (27)
충청남도	7,905 (55)	6,382 (45)
전라북도	12,150 (70)	5,198 (30)
전라남도	12,608 (91)	1,274 (9)
경상북도	21,691 (60)	14,351 (40)
경상남도	18,820 (94)	1,269 (6)
제주도	2,028 (77)	600 (23)
총합계	196,243 (61)	123,763 (39)

자료 : 오세홍·박석중, 지방 R&D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KISTEP, 2011.5.

지역 R&D-상용화-PostR&D의 선순환 환경 미비

지역과학기술이 R&D투자-상용화-산업화-PostR&D의 창출로 지속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역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 단기적 기획 및 조정, 지역과학

기술기반 조성, 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종합적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러한 선순환환경은 과학기술분야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결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추진체계와 예산지원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면 지역 R&D의 선순환 환경조성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문이다. 기존의 정부 주도 타깃팅 지원(주로 공모사업 등)으로 지역 R&D의 특성화를 꾀하는 것은 지역산업기반 조성의 초기단계에 유효한 모델일 뿐 클러스터의 도약·성장 단계에 적합한 연계협력 사업모델로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중앙정부 타깃형 지원사업의 경우 내용적 차별성이 부족하고, 실제로 지역차원에 있어서는 지역 부합성 및 과급효과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사업을 무분별히 추진함으로 인해 시도간, 권역간의 효율적인 연계협력도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고 지역내의 혁신주체(산·학·연)간 효율적인 연계나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역R&D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기반의 혁신주체에 기반한 R&D의 발굴과 추진, 내실화를 통한 고급인력, 기술기반, 과학기술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방과학기술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지방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R&D Control Tower 구축

지자체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중앙부처 및 자체 R&D 계획수립, 기획·관리·평가, 성과의 연계·확산, 유사·중복 조정 등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 지방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각 시도에는 대부분 주요 R&D거점(대학, 테크노파크, 연구단지 등)기관장, 각종 협의회장 등의 위원참여를 통한 지역내 R&D주체간 연계·협력체계 구축과 과학기술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한 지방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과학기술위원회가 단독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지방과학기술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 및 지역 R&D에 대한 수요발굴 등의 연구기능이 포함된 전문지원기구가 함께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R&D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연구, 미래 R&D 수요발굴, 기획 및 관리·평가 등의 R&D 통합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이러한 전문지원기관은 투입 위주의 연구개발정책에서 벗어나 협력, 창출, 이전 및 확산에 있어서도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정책의 발굴 및 추진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 즉,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지원을 지방정부는 지역기반의 전문적인 R&D 기획, 관리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방과학기술에 대한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지역산업육성을 포함하여 지방과학기술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지역산업과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줬으며, 지자체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토대로 자체적인 산업 및 과학기술계획의 기획과 평가 등을 통한 역량도 크게 강화되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지난 2009년 광역경제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지자체가 스스로의 핵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 성과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 및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여 지역의 다양한 수요와 여건변화를 반영해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도 중앙주도의 구조적 한계와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함과 동시에 지방발전 정책간 연결고리로서 과학기술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 R&D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지방R&D 포괄보조금제도는 지자체 중심의 사업을 기획·모니터링·평가 등의 자체시스템(혹은 R&D전담기관구축)을 구축하고 국과위는 사업의 상위평가와 예산배분 및 조정,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제시와 실제 사업의 예산 편성 등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R&D의 선순환 환경 구축

지역 R&D의 선순환 환경이란 지역자원기반 과학기술분야의 지속성을 유지·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R&D를 통해 새로운 부품소재를 개발하고 이러한 것이 다시 기업의 성과와 성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R&D창출의 기반이 되도록 순환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술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실제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부품소재를 개발하여도 매출과 연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기업의 성과와 성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 및 부품소재를 개발하여도 대규모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이를 구매하지 않거나, 대기업의 모듈에 맞춘 부품소재를 개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수요처 발굴 및 확대 등의 판로에 대한 지원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중·장기 대형과제에 있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및 대기업의 과제수행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해 조건부구매 R&D를 통한 신제품 개발방식의 도입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R&D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고급인력의 부족이 있다. 실제로 지역에 있어서는 R&D인력이 열악하고 직종내 이직이 많은 수도권 중심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내 고급인력연계형 R&D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R&D인력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도 필요하다. 이러한 인력, 산학연연계 지원, 과학기술 환경 조성 등은 지속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R&D사업 실태 종합분석, 2010.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학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2011.5.
- 김용희,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현황 및 투자지원방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슈페이퍼 2012-03, 2012.
- 오세홍 · 박석중, 지방 R&D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슈페이퍼2011-15, 2011.
- 차두원외, 지역 R&D효율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슈페이퍼 2011-03, 2011.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시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산업활동(계절조정)(9월)			소 비(9월)	물 가(10월)		대외거래(10월)		고 용(10월)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불변지수)	생활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액 (백만달러)	수입액 (백만달러)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전국	149.0	144.2	158.7	135.3	106.7	106.9	47,147	43,418	25,787	25,069	2.8
서울	86.8	86.4	194.3	131.5	106.7	107.1	4,937	10,346	5,231	5,043	3.6
부산	128.4	123.0	167.0	134.9	107.9	107.6	1,105	1,133	1,698	1,629	4.1
대구	130.0	133.4	148.6	117.9	107.7	107.3	585	309	1,238	1,205	2.7
인천	112.5	112.5	148.2	134.1	105.9	106.1	2,133	3,018	1,498	1,440	3.8
광주	149.6	142.5	101.3	135.1	106.3	106.5	1,152	423	706	692	1.9
대전	144.1	131.6	114.3	122.7	106.8	107.0	319	258	767	742	3.3
울산	127.1	140.3	127.0	132.3	107.1	106.8	7,928	7,318	564	552	2.1
경기	188.3	161.8	215.2	133.7	106.1	106.5	7,541	8,132	6,192	6,007	3.0
강원	134.6	131.6	203.3	181.0	106.7	106.8	184	103	748	736	1.6
충북	176.6	183.4	210.9	161.6	107.2	107.0	1,051	643	789	776	1.7
충남	218.9	202.3	203.7	185.2	107.2	107.2	5,923	2,395	1,128	1,110	1.6
전북	136.4	138.4	141.0	150.7	107.6	107.3	741	375	894	880	1.6
전남	135.6	135.5	134.3	158.0	107.6	107.2	3,830	4,338	940	928	1.2
경북	102.2	100.4	153.3	155.1	107.6	107.0	5,014	1,609	1,452	1,418	2.3
경남	147.0	153.5	129.9	148.3	106.3	106.6	4,693	2,690	1,634	1,606	1.7
제주	113.7	126.0	123.9	170.6	106	106.2	10	27	307	304	0.8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경제 동향(요약)



- 9월 전국의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전월과 동일, 선행종합지수 전월보다 하락
- 9월 충남경제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상승, 기업경기지수는 장기간 기준치보다 낮아 기업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산업활동은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며,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되었음. 물가는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대외거래가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경기

- 9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한 146.7을 나타냄
- 충남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7으로 전월대비 0.1p 상승
- 11월 BSI는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하락(제조업 78, 비제조업 65)
-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경영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시장경기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과 기온하락으로 인해 전월대비 하락할 것으로 조사됨

산업활동

- 9월 광공업 생산지수 +0.7%(217.9), 출하지수 +0.2%(205.4) 전월대비 증가, 재고지수 -1.9%(198.5) 전월대비 감소
- 식료품, 비금속광물제품, 석유정제품 등의 증가가 생산·출하 상승에 기인

소비 및 물가

- 9월 대형소매점(+10.6%), 대형마트(+5.7%) 판매액 전월대비 각각 증가
- 10월 자동차등록대수는 852,628대로 전월대비 0.3%(2,316대) 증가
- 10월 소비자물가지수 107.2(-0.2%), 생활물가지수 107.2(-0.5%) 모두 전월대비 하락

수출입

- 10월 수출은 전월대비 6.4% 증가(59억23백만달러, 반도체 +16.7%, 평판디스플레이 및센서 +16.0% 등)
- 수입은 전월대비 20.1% 감소(23억95백만달러, 원유 -25.1%, 석유제품 -40.9% 등)
- 10월 무역수지는 35억28백만달러 흑자(전월대비 9억57백만달러 증가)

고용

- 10월 경제활동인구 전월대비 0.8%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전월대비 0.3%p 증가(64.7%)
- 취업자 전월대비 0.9% 증가한 1,110천명(농림어업 189천명, 광공업 217천명, 건설업 75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207천명, 사업·개업·공공서비스업 331천명 등)
- 10월 실업률 1.6%로 전월대비 0.1%p 하락, 실업자 18천명으로 전월대비 4.7% 감소

금융

- 10월 어음부도율 0.25%로 전월보다 0.07%p 하락
- 10월 부도금액 29억 7천만원으로 전월보다 13억 6천만원 감소

건설 및 부동산

- 10월 건축허가면적 전월대비 33.0%(482,405㎡), 착공면적 0.5%(437,787㎡) 각각 감소
- 10월 토지거래는 11,588건으로 전월대비 29.5% 증가, 면적은 전월대비 45.9% 증가
- 10월 주택 매매가격지수 110.8로 전월대비 0.5%, 전세가격지수 115.2로 전월대비 0.9% 각각 상승(주요상승지역; 아산 및 천안 동남구·서북구)

1.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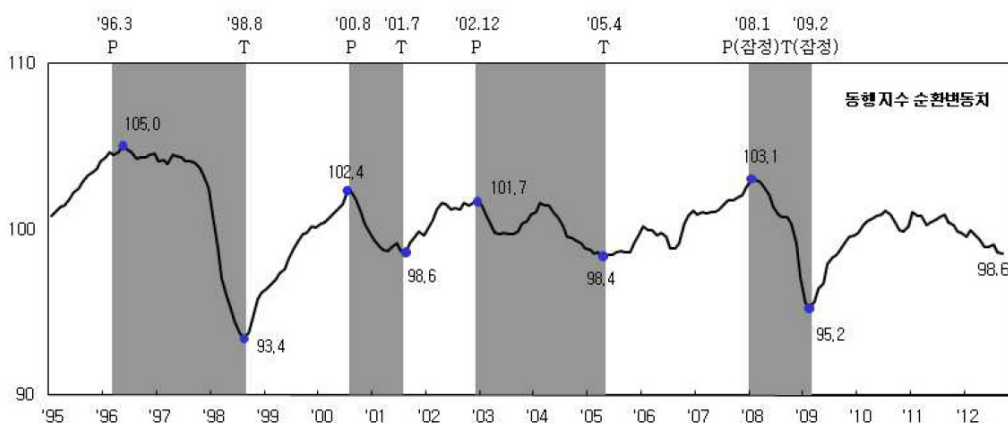
[전국 경기동향]

- 9월 동행종합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3%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

동행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 추이

(2005=100)

구분	'12.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p	8월 ^p	9월 ^p
○ 동행종합지수	143.1	143.3	143.6	143.5	144.1	145.0	144.9	145.4
· 전월비(%)	0.8	0.1	0.2	-0.1	0.4	0.6	-0.1	0.3
○ 순환변동치	100.0	99.6	99.4	98.9	98.9	99.1	98.6	98.6
· 전월차(p)	0.4	-0.4	-0.2	-0.5	0.0	0.2	-0.5	0.0



- 9월 선행종합지수는 코스피지수, 구인구직비율 등은 상승하였으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1% 하락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보다 0.7p 하락

선행종합지수 추이

(2005=100)

구분	'12.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p	8월 ^p	9월 ^p
○ 선행종합지수	140.1	140.6	141.2	141.3	142.8	143.7	144.0	143.8
· 전월비(%)	1.0	0.4	0.4	0.1	1.1	0.6	0.2	-0.1
○ 순환변동치	99.9	99.8	99.8	99.4	100.1	100.3	100.1	99.4
· 전월차(p)	0.7	-0.1	0.0	-0.4	0.7	0.2	-0.2	-0.7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p 상승한 99.7을 나타냄
 - 2012년 9월 동행종합지수는 증가세로 반전하여 146.7을 나타냄

동행종합지수 추이

(2005=100, %, %p)

구 분	'12.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p	8월 ^p	9월 ^p
○ 동행종합지수	143.1	143.0	143.8	145.2	145.8	146.1	145.9	146.7
· 전월비(%)	0.4	-0.1	0.6	0.9	0.5	0.2	-0.1	0.5
○ 순환 변동치	100.1	99.6	99.7	100.2	100.3	100.1	99.5	99.7
· 전월차(p)	0.0	-0.6	0.1	0.5	0.1	-0.2	-0.5	0.1

주 : p는 잠정치임.

- 9월 충남의 경기동향은 산업생산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전력사용량이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나, 비농가취업자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수출액,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상승세로 전환
 - 비농가취업자수(+1.2%), 대형소매점(+3.4%), 수출액(+0.2%), 수입액(+1.9%) 상승
 - 산업생산지수(-1.4%), 전력사용량(-0.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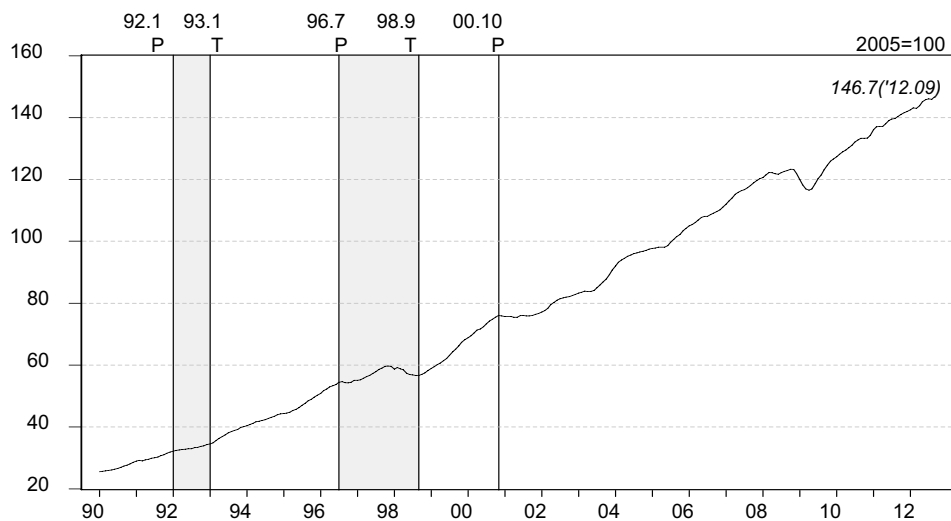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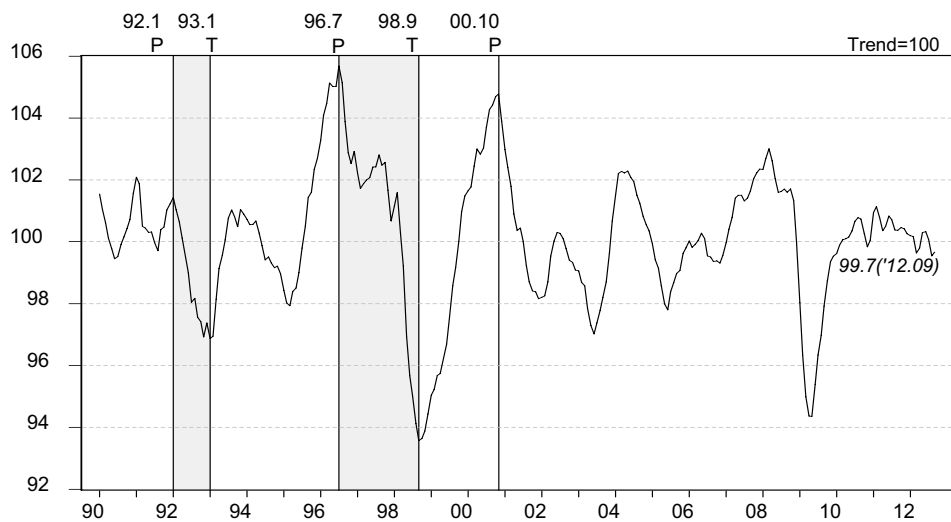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12.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p	8월 ^p	9월 ^p
비농가취업자수	-0.1	0.4	0.9	0.9	0.2	0.6	0.4	1.2
산업생산지수	1.1	0.0	0.0	-0.4	0.0	-0.8	-1.4	-1.4
대형소매점판매지수	-4.5	-8.2	-1.9	0.3	-0.7	1.2	0.8	3.4
전력사용량	1.1	1.9	1.7	1.8	1.7	0.5	0.8	-0.4
수출액(실질)	7.0	5.2	3.5	4.6	4.4	0.7	-0.3	0.2
수입액(실질)	1.4	-2.6	0.4	2.5	-0.1	-1.5	-2.8	1.9

주 : 증감율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 11월 대전·충남지역 제조업 업황BSI, 자금사정전망BSI 모두 전월대비 하락
 - 제조업 업황BSI는 78로 전월(81)보다 3p 하락, 자금사정전망BSI 88로 전월(93)보다 5p 하락
- 11월 대전·충남지역 비제조업 업황BSI와 자금사정전망BSI 모두 하락
 - 비제조업 업황BSI는 65로 전월(70)보다 5p, 자금사정전망BSI는 82로 전월(86)보다 4p 하락
 - 대전·충남지역 제조업과 비제조업 경기전망은 전월보다 모두 하락하여 지역 기업경기 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기업들은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주된 경영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12.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대비 변동폭
기업경기	88	84	84	79	82	81	78(70)	-3(-2)
매출	102	99	98	93	100	98	90	-8
생산	106	100	99	96	99	97	93	-4
신규수주	102	96	97	92	97	96	88	-8
채산성	93	90	89	85	87	88	86	-2
제품재고	105	106	106	107	103	100	102	+2
인력사정	92	92	92	93	90	92	92	0
자금사정	95	95	95	94	92	93	88(82)	-5(-2)
외부자금수요	107	111	109	109	109	104	104	0
자금조달사정	100	99	99	93	92	93	92	-1

주 : ()내는 전국 기준.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12.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대비 변동폭
기업경기	80	76	70	66	62	70	65(67)	-5(0)
매출	91	86	79	74	74	81	78(78)	-3(-5)
채산성	89	84	83	81	76	83	86(79)	+3(-4)
인력사정	84	81	87	85	91	87	81(85)	-6(-1)
자금사정	92	94	90	88	85	86	82(78)	-4(-4)
외부자금수요	112	108	109	110	111	111	112	+1
자금조달사정	95	95	91	89	88	94	91	-3

주 : ()내는 전국 기준.

$$BSI^*(\text{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이면 경우에는 긍정응답업체수가 부정응답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시장경기 동향]

- 10월 충남지역 시장경기는 업황, 마진, 자금사정 지수 상승
 - 상승지수 : 업황(+4.5p), 마진(+3.3p), 자금사정(+8.2p)
 - 하락지수 : 매출(-3.8p), 매입원가(-24.2p), 상품판매가격(-10.4p), 구매고객수(-7.7p)
 -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추석 직후 소비 위축과 함께 겨울철을 앞두고 기온 하락으로 인해 전통시장의 유동인구가 감소하여 전통시장 체감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11월 시장경기 전망은 매입원가, 상품판매가격, 구매고객수 지수 상승
 - 상승지수 : 매입원가(+0.6p), 상품판매가격(+0.8p), 구매고객수(+7.1p)
 - 하락지수 : 업황(-5.8p), 매출(-5.8p), 마진(-4.0p), 자금사정(-3.3p)
 - 11월 전통시장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과 기온하락으로 인한 전통시장 내 유동인구 감소 우려에 따라 전월대비 하락할 것으로 조사됨

시장경기 체감 및 전망

(기준지수=100)

구분		'12.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전망)
업황	전국	64.8	60.4	48.4	44.7	69.3	54.3	84.2
	충남	79.6	47.1	50.4	52.9	72.4	76.9	96.4
매출	전국	68.5	62.2	45.3	43.7	68.8	54.4	94.2
	충남	76.4	54.0	53.3	46.2	76.5	72.7	101.7
마진	전국	64.7	58.5	46.6	43.4	67.9	58.6	89.1
	충남	72.5	54.2	53.5	53.9	70.4	73.7	91.8
매입 원가	전국	128.8	121.3	114.3	123.6	132.6	120.8	115.7
	충남	125.1	117.6	109.4	131.6	139.4	115.2	110.3
상품 판매가격	전국	98.2	94.5	86.5	90.3	100.9	96.4	103.7
	충남	103.0	98.1	92.2	97.9	105.3	94.9	98.0
자금 사정	전국	61.9	57.2	48.6	40.0	66.2	54.9	80.5
	충남	68.5	63.6	50.7	46.0	62.9	71.1	91.3
구매 고객수	전국	64.1	59.2	44.3	42.5	69.1	50.9	90.2
	충남	67.8	58.1	49.4	47.3	74.0	66.3	105.5

주 : 당월을 제외한 수치는 체감지수를 나타냄(당월 : 전망지수).

자료 : 시장경기동향조사보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2. 산업활동

[광공업 산업활동]

- 9월 충남의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4% 감소, 전월대비 0.7% 증가
 - 식료품, 비금속광물제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전기장비,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감소
- 9월 충남의 출하와 재고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출하는 화학제품, 석유정제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등은 감소
 - 재고는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제1차금속 등이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전기장비 등은 감소

광공업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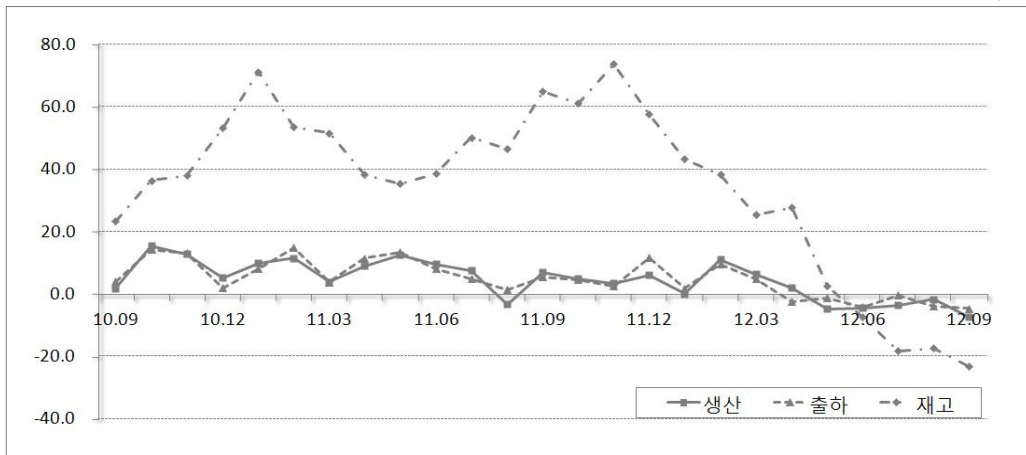
(2005=100.0, %)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9월	6월	7월	8월 ^P	9월 ^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생 산	147.3	154.6	148.9	143.4	148.3	0.7	0.8
	출 하	141.4	148.0	141.0	135.0	142.6	0.8	3.3
	재 고	148.3	155.7	157.8	164.2	156.9	5.8	-2.8
충남	생 산	235.4	232.3	229.0	213.3	217.9	-7.4	0.7
	출 하	215.4	211.0	208.5	199.8	205.4	-4.6	0.2
	재 고	258.9	208.8	216.3	207.8	198.5	-23.3	-1.9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통계청.

충남의 광공업 산업활동 추이

(전년동월대비, %)



3. 소비 · 물가

[소비]

- 9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7.2%, 전월대비 10.6% 각각 증가
 -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136,741백만원, 지수는 185.2를 나타냄
- 대형마트 경상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2.6%, 전월대비 5.7% 각각 증가
 - 내구재가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화장품, 음식료품 등의 준내구재와 비내구재의 상승세 지속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됨

[전월비 주요 상품군별 증감(%)]

- 내구재(-18.3) : 가전제품(-24.9), 컴퓨터(-14.0), 통신기기(-13.2)
- 준내구재(+3.2) : 의복(+27.2), 가방(+3.2)
- 비내구재(+9.4) : 화장품(+15.5), 음식료품(+10.9)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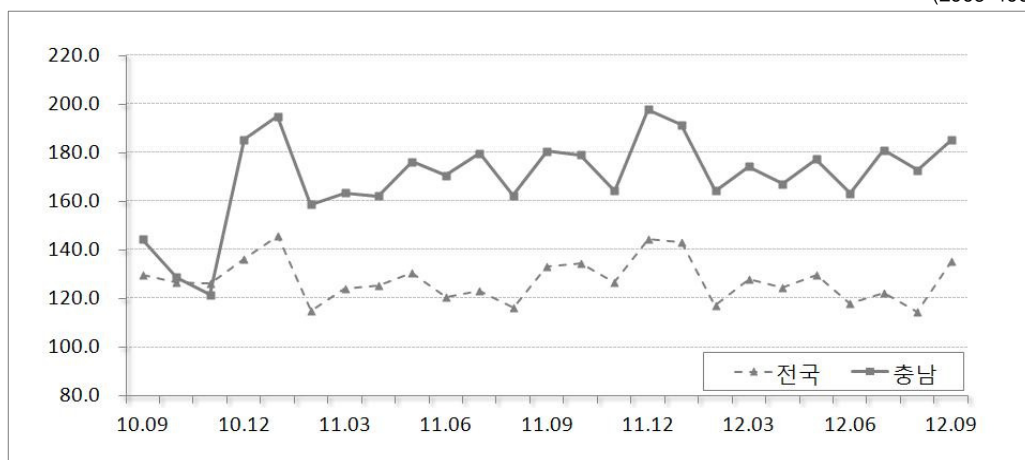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9월	6월	7월	8월 ^p	9월 ^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 국	5,624,733	5,056,845	5,184,096	4,891,293	5,942,121	5.6	21.5	
충 남	대형소매점	127,612	117,048	128,184	123,597	136,741	7.2	10.6
	대형마트	82,798	73,810	87,973	88,229	93,244	12.6	5.7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005=100)



주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

[자동차 등록]

- 10월 충남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전년동월대비 1.5% 감소, 전월대비 0.3% 증가
 - 10월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852,628대로 전년동월보다 13,423대 감소, 전월보다 2,316대 증가
 - 승합차(-0.0%)를 제외한 승용차(+0.4%), 화물차(+0.1%), 특수화물(+0.6%) 모두 전월보다 등록대수 증가
 - 전년동월대비 특수화물(+1.0%)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0.6%), 승합차(-6.0%), 화물(-3.3%)는 감소

* 전년동월대비 등록대수 감소에는 2012.7월 세종시출범으로 인한 영향에 기인함.

자동차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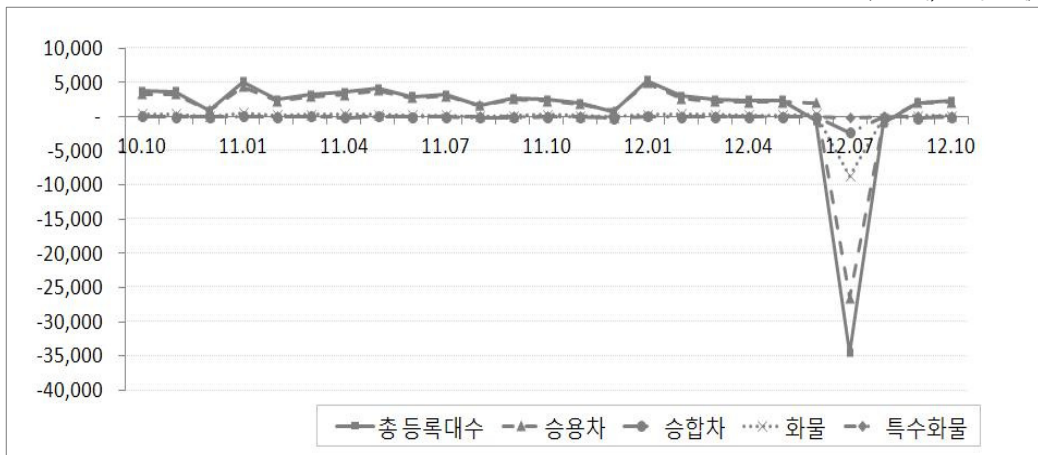
(단위 : 대)

구분		2011년	2012년				증 감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년동월차	전월차
합계		866,051	849,209	848,303	850,312	852,628	-13,423	2,316
차 종 별	승용	616,701	609,179	608,524	610,556	612,698	-4,003	2,142
	승합	49,905	47,178	47,155	46,946	46,930	-2,975	-16
	화물	196,607	190,024	189,786	189,962	190,135	-6,472	173
	특수화물	2,838	2,828	2,838	2,848	2,865	27	17
용 도 별	자가용	825,606	808,022	808,702	810,653	812,836	-12,770	2,183
	관용	4,024	4,010	4,014	4,044	4,036	12	-8
	영업용	36,421	37,177	35,587	35,615	35,756	-665	141

자료 : 시군별 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자동차 등록 추이

(전월차, 단위 : 대)



주 : 2012.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연기군 및 공주시 일부가 충청남도과 분리됨에 따라 7월 자동차등록대수가 급감하였음.

[물가]

- 10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7.2로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전월대비 0.2% 하락
 - 농축수산물(+5.0%), 공업제품(+2.3%), 서비스(+1.9%) 등 주요 품목의 물가지수 대부분이 전년동월대비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07.2로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전월대비 0.5% 하락
- 신선식품지수는 118.8로 전년동월대비 14.8% 상승, 전월대비 3.3% 하락
 - 신선어개(+2.8%), 신선과실(+17.2%), 신선채소(+24.8%) 전년동월대비 상승

소비자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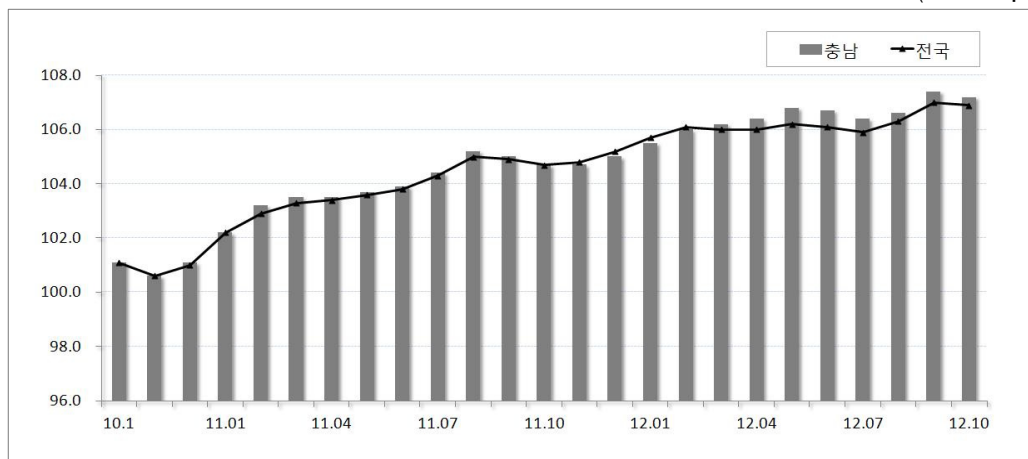
(2010=100,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04.7	105.9	106.3	107.0	106.9	2.1	-0.1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04.7	106.4	106.6	107.4	107.2	2.4	-0.2
상 품 상차별	상 품	106.9	108.5	108.9	110.5	109.8	2.7	-0.6
	서비스	102.6	104.2	104.4	104.3	104.6	1.9	0.3
	생활물가지수	105.2	106.2	106.5	107.7	107.2	1.9	-0.5
	신선식품지수	103.5	109.1	113.7	122.9	118.8	14.8	-3.3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0)



4. 수출입

[수출입]

- 10월 충남의 수출은 59억23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5%, 전월대비 6.4% 증가
 -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평판디스플레이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확대
 - 세계 주요국들의 재정악화가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되면서 주요 수출품목들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10월 충남의 수입은 23억95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5.5%, 전월대비 20.1% 감소
 - 주요 수입품목인 원유, 석유제품, 석탄의 감소세 지속으로 수입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10월 충남의 무역수지는 35억28백만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전월에 비해 수입의 감소로 인해 흑자가 전월대비 다소 증가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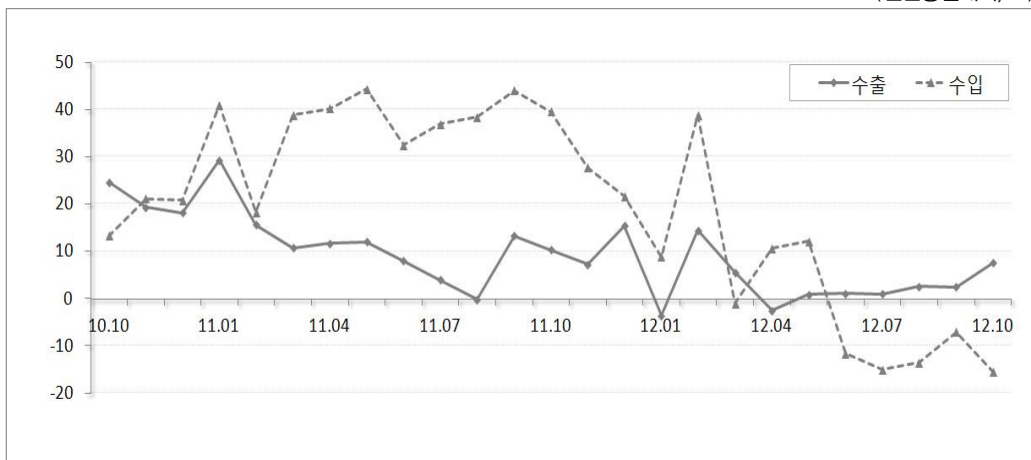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0월	7월	8월	9월 ^P	10월 ^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출	46,613	44,676	43,053	45,424	47,147	1.1	3.8
	수입	42,710	41,951	41,036	42,516	43,418	1.7	2.1
	무역수지	3,903	2,725	2,017	2,908	3,729	-	-
충남	수출	5,510	5,134	5,049	5,567	5,923	7.5	6.4
	수입	2,834	2,398	2,477	2,996	2,395	-15.5	-20.1
	무역수지	2,676	2,736	2,572	2,571	3,528	-	-

자료 : 지역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전년동월대비, %)



10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¹⁾	수출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출총액	5,923	7.5	6.4	100.0
1	반도체	1,729	4.7	16.7	29.2
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167	-1.2	16.0	19.7
3	석유제품	591	31.2	-4.4	10.0
4	전자응용기기	388	12.5	-7.2	6.6
5	무선통신기기	236	641.0	-8.5	4.0

주 : 1) MTI 3단위 기준.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10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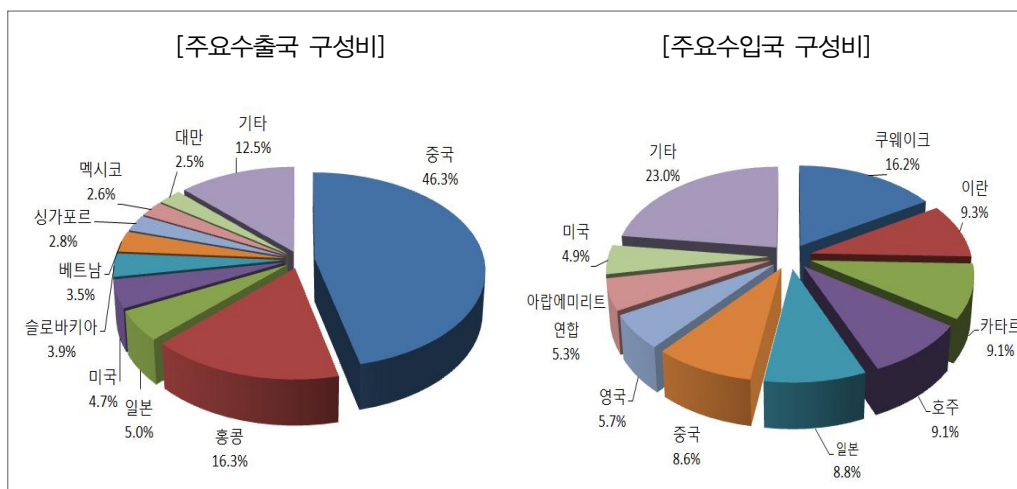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¹⁾	수입액	증 감 율		수입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입총액	2,395	-15.5	-20.1	100.0
1	원유	1,265	-2.2	-25.1	52.8
2	석유제품	143	-46.8	-40.9	6.0
3	석탄	140	-52.1	-27.5	5.8
4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56	8.5	-21.1	2.3
5	정밀화학원료	56	10.9	-5.1	2.3

주 : 1) MTI 3단위 기준.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10월 국가별 수출입 현황



자료 : 지역의 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5. 고 용

[경제활동인구]

- 10월 충남의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15세이상인구는 1,744천명으로 전년동월(1,653천명)보다 91천명(+5.5%)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1,128천명으로 전년동월(1,066천명)보다 62천명(+5.8%)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4.7%로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으며,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량)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경제 활동 인구	전국	25,409	25,901	25,623	25,755	25,787	1.5	0.1
	충남	1,066	1,129	1,112	1,119	1,128	5.8	0.8
	남자	624	664	664	663	664	6.4	0.1
	여자	442	465	448	455	464	5.1	1.9
경제 활동 참가율	전국	61.7	62.2	61.5	61.8	61.8	0.1	0.0
	충남	64.5	65.5	64.2	64.4	64.7	0.2	0.3
	남자	76.3	77.2	76.9	76.5	76.3	0.0	-0.2
	여자	52.8	53.8	51.5	52.3	53.1	0.3	0.8

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자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취업자]

- 10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1,11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9%, 전월대비 0.9% 모두 증가
 - 충남의 청년층 취업자 169천명, 고령층 취업자 318천명으로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27천명(+19.0%), 고령층 취업자 29천명(+10.0%) 증가
-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을 제외한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광공업 217천명(+2.2%), 건설업 75천명(+8.3%), 도소매·음식·숙박업 207천명(+15.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31천명(+12.1%)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 189천명(-0.2%), 전기·운수·통신·금융업 90천명(-1.5%)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여 증가세를 지속하던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반전하였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수의 감소세가 다소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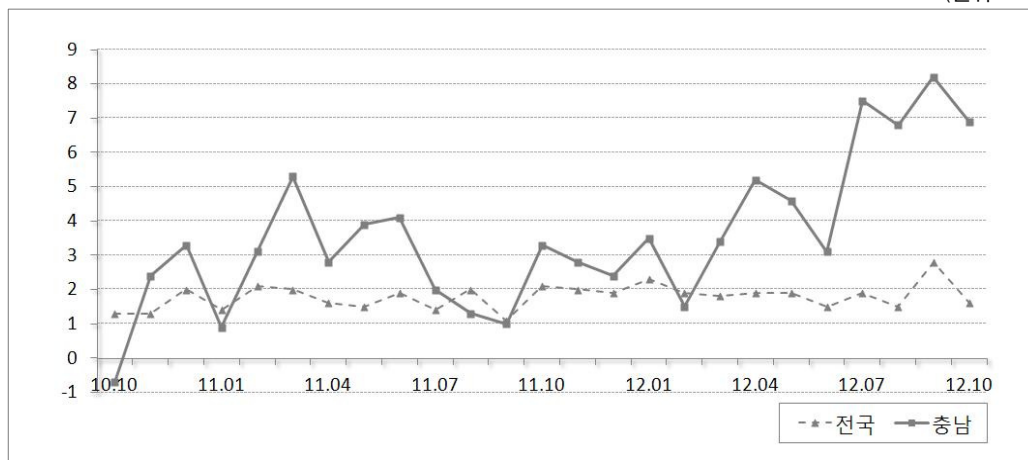
연령별·산업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년 동월비	전월비	
합계	전 국	24,673	25,106	24,859	25,003	25,069	1.6	0.3	
	충 남	1,038	1,104	1,088	1,099	1,110	6.9	0.9	
청년층 (15~29세)	전 국	3,834	3,998	3,868	3,775	3,741	-2.4	-0.9	
	충 남	142	170	165	167	169	19.0	1.1	
고령층 (55세이상)	전 국	5,297	5,527	5,514	5,611	5,648	6.6	0.7	
	충 남	289	315	308	313	318	10.0	1.6	
	55~59세	93	99	97	100	103	10.0	2.2	
	60세이상	196	216	211	213	215	9.6	0.8	
산업별	농림어업	189	188	188	194	189	-0.2	-2.4	
	광공업	213	212	212	219	217	2.2	-0.6	
	건설업	70	67	70	72	75	8.3	4.7	
	도소매 음식숙박업	180	213	209	195	207	15.2	6.0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295	331	319	332	331	12.1	-0.4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92	94	91	88	90	-1.5	2.5	

취업자 증감률 추이

(단위 : %)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 10월 충남의 실업자는 1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9%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1.6%로 전년동월대비 1.0%p, 전월대비 0.1%p 각각 하락

6. 금 용

[수신·여신]

* 9월 충남 여수신 현황은 데이터 공표가 연기됨에 따라 익월호부터 재수록 예정임.

[어음부도]

- 10월 충남의 부도율은 0.25%로 전월대비 0.07%p 하락
 - 지역별로는 천안 0.32%, 공주 0.31%, 서산 0.00%, 당진 0.00%, 아산 0.25%, 부여 0.00%의 부도율을 나타냄

충남지역 어음부도율

(단위 : %, %p)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연중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대비 증감	전년동월대비 증감
충 남	0.31	0.39	0.21	0.19	0.32	0.25	-0.07	-0.14
천 안	0.47	0.61	0.09	0.10	0.19	0.32	0.13	-0.29
공 주	0.57	1.93	1.79	0.16	1.20	0.31	-0.89	-1.62
서 산	0.00	0.00	0.01	0.01	0.03	0.00	-0.03	0.00
당 진	-	-	0.30	0.04	1.55	0.00	-1.55	-
아 산	-	-	0.43	1.23	0.31	0.25	-0.06	-
부 여	-	-	0.00	0.00	3.28	0.00	-3.28	-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10월중 부도금액은 29억 7천만원으로 전월보다 13억 6천만원 감소
 - 제 조 업 : 9월 7억 2천만원 → 10월 23억 3천만원
 - 건 설 업 : 9월 3억 6천만원 → 10월 1천만원
 - 서비스업 : 9월 20억 1천만원 → 10월 6억원
- 10월중 부도업체수는 3개로 전월 부도업체수와 동일

업종별 부도금액 및 부도업체수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부 도 금 액	제조업	6.2	12.8	14.9	7.2	23.3	17.1	16.1
	건설업	28.8	8.0	1.6	3.6	0.1	-28.7	-3.5
	서비스업	8.2	4.0	2.6	20.1	6.0	-2.2	-14.1
	기 타	0.1	0.6	0.7	0.6	0.3	0.2	-0.3
	합 계	43.3	25.4	19.8	31.5	29.7	-13.6	-1.8
부 도 업 체 수	제조업	0	1	1	1	3	3	2
	건설업	1	0	1	0	0	-1	0
	서비스업	1	0	1	2	0	-1	-2
	기 타	0	0	0	0	0	0	0
	합 계	2	1	3	3	3	1	0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신설법인수]

- 10월 충남의 신설법인수는 203개로 전월(209개)보다 6개 감소

7. 건설 ·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 10월 충남의 건축허가면적은 482,405㎡로 전년동월대비 68.2%, 전월대비 33.0% 각각 감소
 - 10월 허가면적 구성비 : 공업용(30.8%), 주거용(25.5%), 상업용(21.9%)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m²)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1,518,020	528,696	878,978	719,978	482,405	-68.2	-33.0	
주거용	804,539	197,947	462,415	176,729	123,023	-84.7	-30.4	
상업용	141,756	132,482	90,296	87,311	105,478	-25.6	20.8	
농수산업용	68,801	17,033	64,775	26,767	39,300	-42.9	46.8	
공업용	155,682	93,663	165,471	129,228	148,697	-4.5	15.1	
기 타	347,242	87,571	96,021	299,943	65,907	-81.0	-78.0	

자료 : 건축허가 현황, 국토해양부(국토해양통계누리).

- 10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437,787㎡로 전년동월대비 66.1%, 전월대비 0.5% 각각 감소
 - 10월 착공면적 구성비 : 주거용(26.1%), 공업용(21.9%), 상업용(15.0%)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m²)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1,290,749	475,662	624,679	440,062	437,787	-66.1	-0.5	
주거용	506,793	109,073	351,444	185,225	114,421	-77.4	-38.2	
상업용	137,745	134,950	68,287	91,305	65,491	-52.5	-28.3	
농수산업용	91,089	29,840	23,158	40,836	54,232	-40.5	32.8	
공업용	157,273	163,307	134,175	69,982	95,754	-39.1	36.8	
기 타	397,849	38,492	47,615	52,714	107,889	-72.9	1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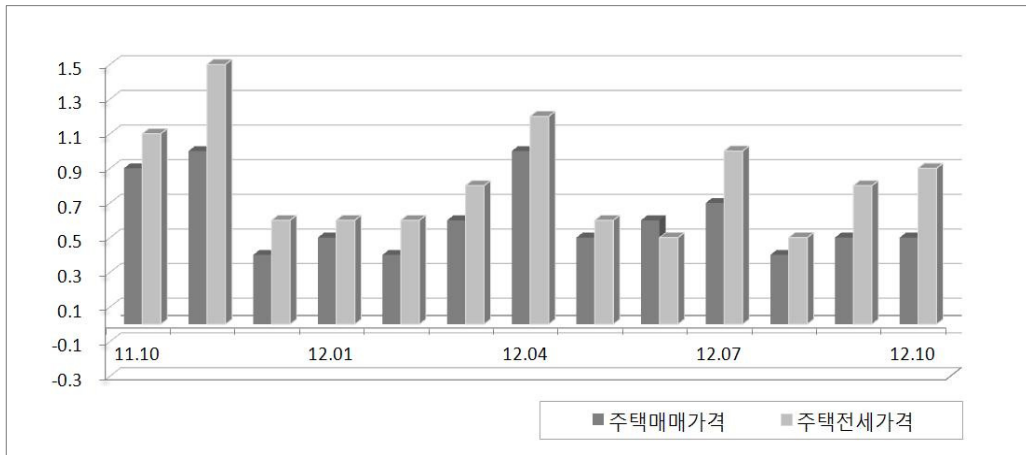
자료 : 건축착공 현황, 국토해양부(국토해양통계누리).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10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10.8로 전년동월대비 7.2%, 전월대비 0.5% 각각 상승
 - 아산에서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와 시외버스터미널 복합쇼핑타운 개발로 투자수요도 발생하며 상승하고, 천안 동남구에서는 전세물량 부족으로 소형을 중심으로 매매가 증가함
 - 매매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아산(+0.9%), 천안 동남구(+0.5%) 지역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상승
- 10월 충남의 전세가격지수는 115.2로 전년동월대비 10.1%, 전월대비 0.9% 각각 상승
 - 아산의 삼성전자 협력업체 근로자 수요와 인근지역에서의 유입 수요 등으로 상승하고, 천안 서북구에서 지역 내 공단 직장인 수요 등이 지속되며 상승세가 이어짐
 - 전세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아산(+1.6%), 천안 서북구(+0.9%) 지역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상승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률

(단위 : 전월대비, %)



자료 : 월별 주택 가격동향, 국민은행.

[토지거래]

- 10월 충남의 토지거래는 11,588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8% 감소, 전월대비 29.5% 증가
 - 토지거래 면적은 13,496천㎡로 전년동월대비 1.3%, 전월대비 45.9% 증가

토지거래

(단위 : 건, 천㎡,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필 지	12,995	12,009	9,908	8,948	11,588	-10.8	29.5
면 적	13,329	12,085	10,470	9,252	13,496	1.3	45.9

자료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통계, 국토해양부.

해외 경제 동향(요약)



존 불확실성 지속

- 해외경제는 미국 등이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유로지역은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신흥국은 성장세가 약화
- 스페인 금융·재정 불안, EU 은행동맹(Banking Union) 운영시기 등 세부내용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 등으로 유로

미국

- 미국 경제는 3/4분기 성장률(전기비연율)이 2.0%로 전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고용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산업생산·개인소비지출이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며, ISM제조업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치(50)를 상회하고 소비심리가 '07.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중국

- 중국 경제는 3/4분기 성장률이 7.4%로 전분기에 비해 0.2%p 하락하며 성장둔화세를 지속하였으나, 9월 이후 수출과 소비·투자 등 경제지표가 개선
- 지난해 높은 수준을 보였던 소비자물가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면서 9월 1%대로 하락

일본

- 일본 경제는 산업생산, 수출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소비자물가도 6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부진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 수출 역시 6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3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음

유로지역

- 유로 경제는 2/4분기 성장률 -0.2%를 기록하며 마이너스성장으로 전환
- 산업생산, 소매판매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관리자지수) 부진과 사상 최고 수준의 실업률 지속 등 경기가 둔화가 지속

1. 미 국

- 미국 경제는 2012년 3/4분기 성장률 2.0%(전기비연율)를 나타냄
- 9월 미국의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4% 증가
 - ISM제조업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치(50)를 상회하고 있어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양상임
 - * ISM제조업지수 : 제조업체의 구매담당자가 느끼는 경기를 지수화 한 것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0%, 생산자물가는 2.1% 각각 증가
 -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추세이나, 소비심리가 '07.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제상황이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실업률은 7.8%를 나타내며 전월보다 0.3%p 하락
 - 8%대를 상회하던 실업률인 9월 들어 8%를 하회하였으며, 비농업취업자수가 증가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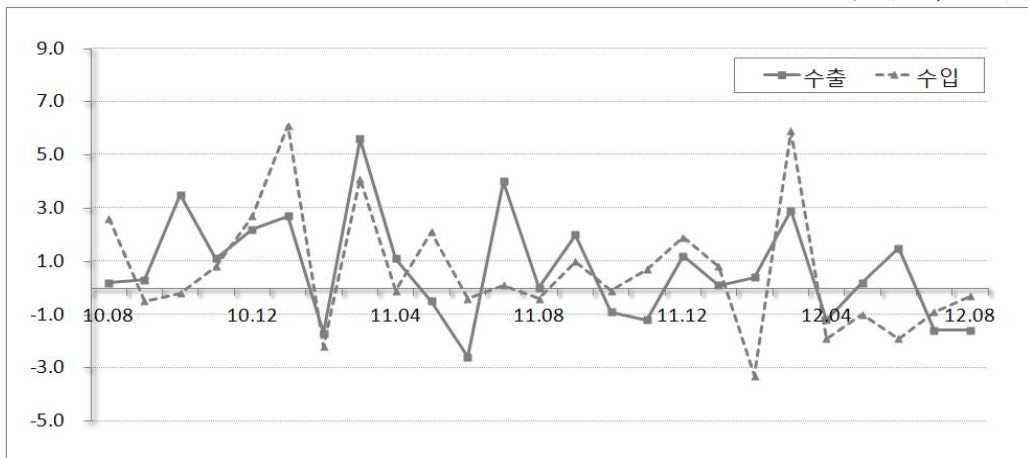
(단위 : %, 전월대비)

구분		2011년	2012년					
		연간	4월	5월	6월	7월 ^P	8월 ^P	9월 ^P
산업생산		4.1	0.8	0.1	0.0	0.7	-1.4	0.4
소매판매		8.0	-0.5	-0.1	-0.7	0.7	1.2	1.1
물가 ¹⁾	생산자 ²⁾	6.0	1.8	0.6	0.7	0.5	2.0	2.1
	소비자	3.2	2.3	1.7	1.7	1.4	1.7	2.0
무역	수 출	16.2	-1.2	0.2	1.5	-1.6	-1.6	-
	수 입	15.6	-1.9	-1.0	-1.9	-0.9	-0.3	-
실업률 ³⁾		9.0	8.1	8.2	8.2	8.3	8.1	7.8
주가지수 ⁴⁾		12,217.6	13,213.6	12,393.5	12,880.1	13,008.7	13,090.8	13,437.1

주 : 1) 전년동월대비 2) 최종재 기준 3) 군인 제외,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4) 다우존스 공업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2.11), 기획재정부 / 국내경제동향(2012.10), 한국은행

미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월대비)



2. 중 국

- 중국 경제는 2012년 3/4분기 성장률 7.4%(전년동기대비)를 나타냄
- 9월 산업생산 9.2%, 소매판매 14.2%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9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폭이 전월에 비해 다소 확대됨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6% 감소
 - 생산자물가는 3월부터 감소세 지속되고 있으며, 시간이 거듭될수록 감소폭이 확대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9%,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증가
 - 지난달 주춤했던 수출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입역시 증가세로 전환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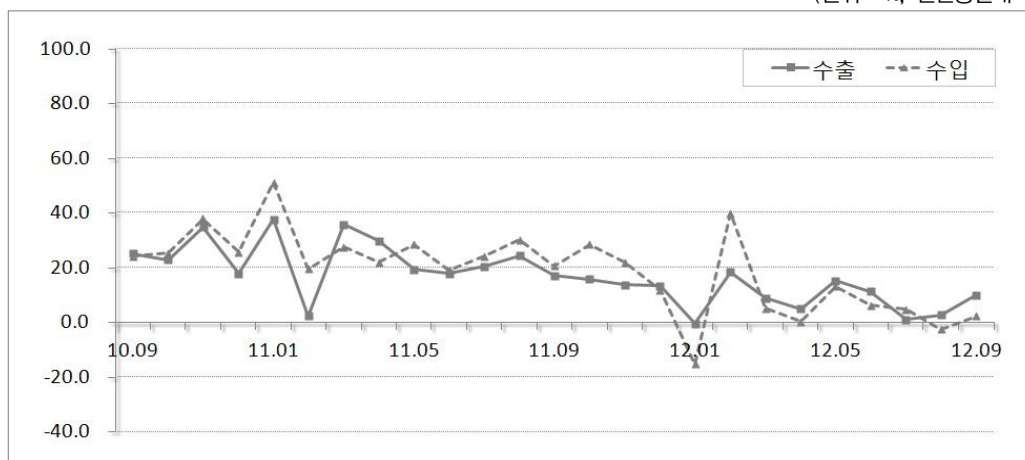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연간	4월	5월	6월	7월 ^p	8월 ^p	9월 ^p
산업생산		13.9	9.3	9.6	9.5	9.2	8.9	9.2
소매판매		17.1	14.1	13.8	13.7	13.1	13.2	14.2
물가	생산자	6.1	-0.7	-1.4	-2.1	-2.9	-3.5	-3.6
	소비자	5.4	3.4	3.0	2.2	1.8	2.0	1.9
무역	수 출	20.3	4.9	15.3	11.3	1.0	2.7	9.9
	수 입	24.9	0.2	13.1	6.3	4.7	-2.6	2.4
주가지수 ¹⁾		2,199.42	2,396.32	2,372.23	2,225.43	2,109.91	2,047.52	2,086.17

주 : 1)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2.11), 기획재정부 / 국내경제동향(2012.10), 한국은행.

중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3. 일본

- 일본 경제는 2012년 2/4분기 성장률 0.3%(전기대비)를 나타냄
- 9월 수출은 10.3% 전년동월대비 감소, 수입은 4.1% 증가
 - 수출이 6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3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음
- 9월 일본의 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4.1% 감소, 소매판매 전년동월대비 0.4% 증가
 - 소매판매는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이 9월 21일 종료되면서 지난달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됨
-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3% 하락
- 실업률은 4.2%를 나타내며 전월과 보합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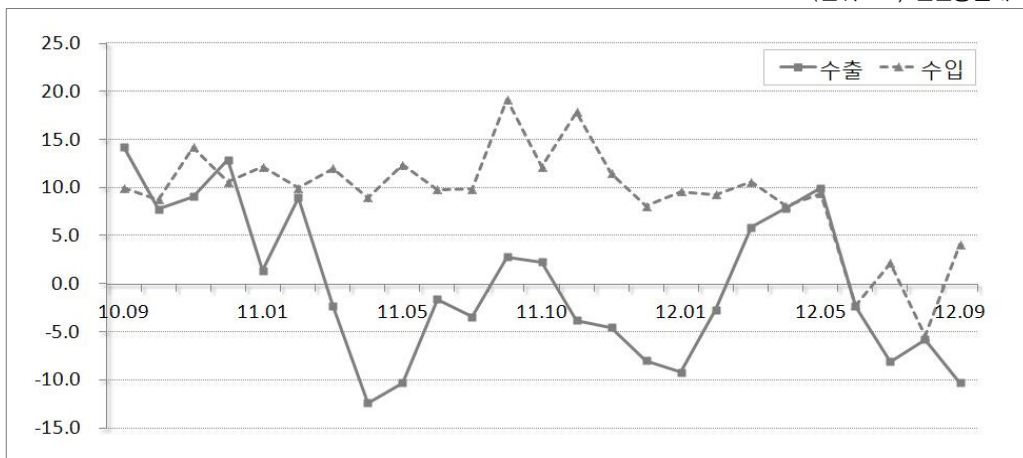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구분		2011년	2012년					
		연간	4월	5월	6월	7월 ^P	8월 ^P	9월 ^P
산업생산 ¹⁾		-3.5	-0.2	-3.4	0.4	-1.0	-1.6	-4.1
소매판매		-1.2	5.7	3.6	0.2	-0.7	1.7	0.4
물가	생산자	1.5	-0.6	-0.8	-1.5	-2.2	-1.9	-1.4
	소비자 ²⁾	-0.3	0.4	0.2	-0.2	-0.4	-0.4	-0.3
무역	수 출	-2.7	7.9	10.0	-2.3	-8.1	-5.8	-10.3
	수 입	12.0	8.1	9.4	-2.2	2.2	-5.4	4.1
실업률 ³⁾		4.6	4.6	4.4	4.3	4.3	4.2	4.2
주가지수 ⁴⁾		8,455	9,521	8,543	9,007	8,695	8,840	8,870

주 : 1) 전월대비, 광공업, 2005=100 2) 2005=100 3)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4) 일경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2.11), 기획재정부 / 국내경제동향(2012.10), 한국은행.

일본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4. 유로지역

- 유로지역 경제는 2012년 2/4분기 성장률 -0.2%(전기대비)를 나타냄
- 8월 산업생산 0.6%, 소매판매 0.1% 전월대비 증가
 - 8월 소매판매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산업생산이 감소세 지속
- 8월 수출과 수입은 전월대비 각각 3.7%, 2.1% 증가
-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11.4%를 나타냄
 - 실업률이 '11.5월 이후 1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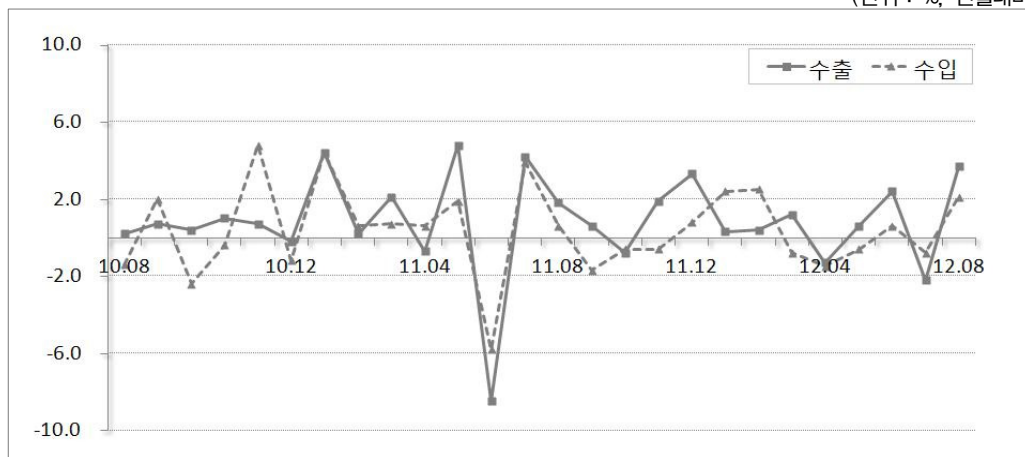
구분	2011년 연간	2012년					
		4월	5월	6월	7월 ^P	8월 ^P	9월 ^P
산업생산 ¹⁾	3.5	-1.0	1.0	-0.5	0.6	0.6	-
소매판매	-0.6	-1.3	0.9	0.1	0.1	0.1	-
물가 ²⁾	생산자	5.9	2.6	2.3	1.8	1.6	2.7
	소비자	2.7	2.6	2.4	2.4	2.4	2.6
무역	수 출	13.7	-1.3	0.6	2.4	-2.2	3.7
	수 입	13.0	-1.5	-0.6	0.6	-0.8	2.1
실업률 ³⁾	10.2	11.2	11.3	11.4	11.4	11.4	-
주가지수 ⁴⁾	2,316.6	2,306.4	2,118.9	2,264.7	2,325.7	2,403.8	2,454.3

주 : 1) 전산업(건설업 제외) 2) 생산자물가는 건설업 제외,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기준 3) ILO 기준,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4)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2.11), 기획재정부 / 국내경제동향(2012.10), 한국은행

유로지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월대비)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12.11.15] 경제 기관·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토론

- 충남도는 11.15(목) 충남테크비즈존(KTX천안아산역)에서 경제관련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 충남도지사, 충남테크노파크원장 등 10개 경제기관·단체장, 도 경제통상실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보경제학자로 유명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를 초청해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
 -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내용’을 주제로, 경제민주화 개념과 최근의 논의 내용, 정부를 비롯한 경제주체의 역할 등을 역설

['12.11.15] 도내 11개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 충남도는 (주)제이티(대표이사 유홍준) 등 11개 기업을 올해의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11.15(목) 도청 소회의실에서 인증패를 수여
 - 충남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지난 1년간 신규 채용한 정규직 직원은 267명이며, 정규직 전환 54명, 청년인턴은 32명으로 총 353명의 직접고용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또한 향후 6개월 이내 211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
 -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도내에서 2년 이상 정상 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지난해보다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기여한 우수기업임을 도가 인증하는 제도
 - 이번 선정 기업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작업환경 개선비용 1,500만원 지급, 국내외 마케팅 우대 지원, 도와 시·군의 물품구매시 우선 구매, 충남경제진흥원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20% 할인,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료 10% 할인 등을 지원할 예정
 - 충남도는 그동안 31개 기업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바 있으며, 이들 기업의 고용창출 인원은 모두 1,186명임

['12.11.14] 日 오사카府 사카이市 부시장 우리道 방문

- 충남 천안시와 교류를 추진중인 일본 오사카府 사카이市의 타무라 츠네키즈(田村 恒一) 부시장이 11.14(수) 충남도청을 방문,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예방
 - 타무라 부시장은 이날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충남도의 가교 역할로 사카이시가 충남의 대표 도시인 천안시와 교류 물꼬를 트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달

- 이에 대해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고대부터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해 온 한·일 양국이 평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적 관계를 맺길 바라며, 천안시와 사카이시가 그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
- 사카이시는 인구 84만명에 면적은 1,499㎢(천안시의 2배 규모)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발달한 오사카부의 정령 지정도시이며, 백제유적이 산재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음

['12.11.13] 충남도 올해 7개 작물에서 13개 신품종 개발 성공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관상용 벼 ‘충남1호’와 인삼 ‘충남4호’ 등 모두 13개 신품종을 개발했다고 밝힘
- 개발 신품종은 딸기 1개 품종과 방울토마토 1, 장미 1, 국화 5, 백합 2, 인삼 1, 관상용 벼 1, 양송이버섯 1개 등 7개 작물
-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내년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등록이 완료되면 도내 농가에 우선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국제박람회 등을 통해 해외시장에도 선보여 수출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해외 품종보호도 출원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품종을 개발, 도 농업기술원이 종자 강국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
-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09년 14개 품종, 2010년 13개 품종, 지난해 11개 품종을 개발하는 등 현재까지 120개 신품종을 개발, 종자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수입 대체와 농가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12.11.12] 세계 청소년과 ‘충남 관광’ 공유

- 국내 청소년과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코리아 브랜드 탐험대’가 11.13~11.16 간 충남 태안과 홍성, 예산 등 8개 시·군 관광지 등을 돌며, 세계 청소년들에게 충남을 알리는 계기
- 충남도에 따르면,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코리아 브랜드 탐험대는 미국·중국 유학생 10명과 국내 학생 18명 등 모두 28명의 청소년으로 구성
- 이번 탐방기간 동안 태안 천리포수목원과 홍성 이응노 생가 기념관, 부여 백제 문화단지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살펴보고, 수덕사 템플스테이와 국악 등을 체험
-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코리아 브랜드 탐험대 방문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국내·외 청소년들을 통해 경쟁력 있는 충남 관광자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12.11.11] 일본에서 3천만불 투자유치 구체화

- 충남도에 따르면, 道 투자입지과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투자유치사절단은 지난 11.8~11.9 간 일본을 방문, 이바라키현 켄프로로시스템社에서 혼보겐니치(本坊健一) 사장과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 MOU에 따르면, 켄프로로社는 1,000만 달러를 투입, 천안5산업단지에 8,250m² 규모의 화학약품용기 생산 공장을 설립하며, 공사는 올해 11월중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 예정
 - 사절단은 또 도쿄 군마현에 위치한 아드반테스트사 R&D센터를 방문, R&D센터의 한국 이전과 관련해 2,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투자협약 협상을 구체화하기로 협의
 - 이번 투자유치에 따라 충남도는 올해 목표로 잡은 8개 글로벌 기업을 모두 유치했으며, 금액(MOU 기준)은 지난해 3억 4,400만 달러의 155%인 5억 3,400만 달러를 기록중임

['12.11.9] 충남 쌀, '전국 최고' 반열에 진입

- 충남도는 제15회 전국 고품질 우수 쌀 전업농 선발대회에서 최상목(57·당진시) 씨가 출품한 해나루 쌀이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힘
 -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이 후원·협찬한 이번 대회는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을 위해 열렸으며, 각 시·도 대표로 뽑힌 40개 브랜드가 출품돼 우열을 가렸음
 - 대상을 수상한 해나루 쌀은 충남 대표 품종인 삼광벼를 원료곡으로 사용했으며, 잔류농약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외형·성분 검사(한국식품연구원), 식미 검사(국립식량과학원)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
 - 충남도 관계자는 “전국 고품질 쌀 대회에서 충남 쌀이 1위인 대상을 비롯, 각종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도의 3농혁신을 통한 고품질 쌀 육성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도 충남 쌀이 전국 최고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시책을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

['12.11.7] 옛 장항제련소에 첨단부품공장 들어선다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옛 장항제련소에 첨단 정밀전자기기 핵심소재 생산 공장이 들어서게 되어 1960~1970년대 한국 산업화의 상징적 유물이 미래 성장엔진으로 탈바꿈
 - 충남도지사는 11.7(수) 도청 소회의실에서 LS메탈(주) 사장, 서천군수 등과 투자협약(MOU)을 체결
 - MOU에 따르면, LS메탈은 2014년부터 3년간 2,000억원을 투입, 옛 장항제련소 내 6만

6,000m²의 부지에 동합금 압연소재(Copper Alloy Strip) 부품공장을 신설

- 충남도지사는 “오랜 기간 답보상태를 보였던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난해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서천군민들은 그동안 고통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LS메탈의 신사업 투자는 서천지역은 물론 충남 서남부권 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언급

['12.11.6]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1,859만불 수출계약

- 충남도는 11.6(화)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 2,430만 달러의 수출상담과 1,859만 달러의 수출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밝힘
- 충남도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가 주관한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 미주 등 8개국 31개사의 바이어가 참가
- 도내에서는 자동차부품과 화장품, 건축기자재, 전기전자, 가공식품 등을 생산하는 우수 중소 수출기업 97개사가 참가하여 2,43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실시
- 충남도지사는 이날 바이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도내 생산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매 결정을 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각국 기업들이 아무런 장애없이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

['12.11.5]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본격 착수

- 충남도에 따르면 현대도시개발(주)이 10.16일 제출한 태안읍 송암리 일대 태안기업도시 내 골프장 착공신고가 승인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물꼬가 트임
- 태안 기업도시시는 총면적 1,464만m² 부지 위에 약 9조원(현대 2조 6,600억원, 외자 6조 3,400억원)을 투입해 골프장(108홀)과 리조트, 첨단복합단지, 테마파크, 국제 비즈니스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
- 태안 기업도시시가 완공되면 상주인구 1만 5천명의 인구유입 효과와 연간 관광객 770만명, 생산유발효과 약 16조 9천억원, 고용파급효과 22만명이 예상되는 등 태안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대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

['12.10.31] 충남도 올해 수출 450억불 기록

- 충남도내 올해 수출액이 10월말 기준 450억 달러를 넘어서며,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 충남도에 따르면, 10월말까지 도내 총 수출액은 450억 8,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1억 2,000만 달러에 비해 9억 6,800만 달러(2.2%) 늘었고,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251억 4,300만 달러에 비해 1.1% 증가한 254억 1,500만 달러로 집계됨에 따라 무역수지는 196억 7,300만 달러 흑자로,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실적 및 비중을 보면, 반도체가 117억 6,700만 달러(26.1%)로 가장 많고, 평판디스플레이 83억 6,800만 달러(18.6%), 석유제품 43억 9,900만 달러(9.8%), 전자 응용기기 33억 6,700만 달러(7.5%), 컴퓨터 17억 7,700만 달러(3.9%), 등으로 집계
 - 국가별 수출 실적 및 비중을 보면, 중국이 195억 8,400만 달러(43.4%)로 가장 많고, 홍콩 63억 2,400만 달러(14.0%), 미국 32억 1,400만 달러(7.1%), 일본 26억9,500만 달러(6.0%), 대만 19억 8,700만 달러(4.4%) 등으로 집계

['12.10.29] '충남형 물가안정관리시스템' 공감대 형성

- 충남도는 10.29(월)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물가 담당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3/4분기 물가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 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함
 -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방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요금의 상승 요인을 분석, 대처방안과 분야별 물가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방안을 모색
 - 시·군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충남형 물가안정관리시스템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 시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시·군과의 유기적 협조와 민·관의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주요 민간 기관 · 단체 경제리포트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SERI경제포커스)_** <http://www.seri.org>
 - 상생 복합형 신흥국 진출전략 연구
 - 2013년 한국기업의 6대 경영이슈
 - CEO에게 추천하고 싶은 앱
 - 자원시장 하락추세로 전환되었나?
 - 최근 경제현안 진단
 - 글로벌 자본의 신흥국 유입과 투자
 - 스마트 시대, 소비자 ‘불만’ 을 ‘신뢰’ 로 바꾸는 비결
 - 자영업의 3고 현상과 완화방안
- **현대경제연구원_** <http://hri.co.kr>
 - 2013년 미국 경기 진단 - 하반기, 빠른 회복 기대
 -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는 ABC(남미) 경제권
 - 금강산관광,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
 - 2013년 중국경제 전망과 시사점 : 8%대 회복가능 예상
 - 오바마 재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미국경제의 회복 조건과 전망
- **LG경제연구소_** <http://www.lgeri.com>
 - 부채 조정, 잠재성장 저하, 고령화, 일본형 소비침체의 그림자
 - ‘직장내 가십’, 가볍게 넘길 대상 아니다
 - 배출권거래제,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과제
 - 새로운 홈 라이프스타일로 본 미래 홈 IT 스타일
 - 미국 대선 끝났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
 - 공유와 경청없이 집단 지성 없다
- **한국금융연구원_** <http://www.kif.re.kr>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CP에 대한 국제 논의동향과 시사점
- **한국은행_** <http://www.bok.or.kr>
 - 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
 -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영향과 정책과제
 -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완만하다고 평가되는 배경
- **대한상공회의소_** <http://www.korcham.net>
 - 2013년 물류기업 신규채용계획 조사
 -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중국 시진핑시대 개막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 18대 대선을 바라보는 기업의견 조사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내총생산 (GDP) ¹⁾	억원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32,749	12,371,282
국민총소득 (GNI) ¹⁾	억원	9,768,139	10,341,154	10,697,831	11,747,530	12,405,039
1인당 GNI ¹⁾	억원	2,010	2,113	2,175	2,378	2,492
경제성장률 ²⁾	%	5.1	2.3	0.3	6.3	3.6
산업구조						
농림어업	%	2.9	2.7	2.8	2.6	2.7
광공업		27.5	28.1	28.0	30.5	31.4
전가가스·수도사업		2.2	1.3	1.8	2.0	2.0
건설업		7.4	7.0	6.9	6.3	5.9
서비스업 및 기타		60.0	60.8	60.4	58.5	58.1
제조업 평균가동률	%	80.3	77.6	74.4	80.9	79.9
취업자	천명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농림어업	%	7.4	7.2	7.0	6.6	6.4
광공업		17.2	16.9	16.4	17.0	16.9
건설업		7.9	7.7	7.3	7.4	7.2
서비스업 및 기타		67.6	68.3	69.3	69.1	69.5
실업률	%	3.2	3.2	3.6	3.7	3.4
경상수지		21,770	3,198	32,790	29,394	26,505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7,129	5,170	37,866	40,082	30,950
서비스수지		△11,967	△5,734	△6,641	△8,626	△4,377
소득수지		135	4,435	2,277	1,016	2,456
경상이전수지		△3,527	△674	△712	△3,079	△2,523
수출액	억달러	3,715	4,220	3,635	4,664	5,552
수입액		3,568	4,353	3,231	4,252	5,244
총저축률	%	30.8	30.5	30.2	32.1	31.7
민간비중	%	20.2	21.2	23.4	24.7	24.1
정부비중		10.6	9.3	6.8	7.4	7.6
총자본형성	십억원	277,729	277,773	240,412	278,359	—
최종소비지출	%	69.1	70.0	70.1	67.8	68.3
민간비중	%	54.4	54.7	54.1	52.6	52.9
정부비중		14.7	15.3	16.0	15.2	15.4
생산자물가상승률	%	1.4	8.6	-0.2	3.8	6.1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4.7	2.8	3.0	4.0

주 : 1) 당해년 가격 2) 실질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일일 경제지표 (2012.11.1기준)

금리

구 분	'10말	'11말	12.9말	10.30	10.31	11.1	전일비	'11말비
콜금리(1일), %	2.49	3.27	2.99	2.74	2.74	2.76	0.02	△0.51
CD(91일), %	2.80	3.55	3.09	2.85	2.85	2.85	0.00	△0.70
국고채(3년), %	3.38	3.34	2.80	2.78	2.77	2.77	0.00	△0.57
국고채(5년), %	4.08	3.46	2.88	2.86	2.84	2.83	△0.01	△0.63
회사채(3년, AA-), %	4.27	4.21	3.31	3.30	3.29	3.29	0.00	△0.92
외국인채권순매수(상장액억원)	638,134	410,274	28,470	630	723	1,492	769	1,097

※ '10말('10.1.1~12.31), '11말('11.1.1~12.31), '12.9말('12.9.1~9.30),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주가

구 분	'10말	'11말	12.9말	10.30	10.31	11.1	전일비	'11말비
KOSPI지수	2,051.00	1,825.74	1,996.21	1,899.58	1,912.06	1,898.44	△0.71%	3.98%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53,969	36,321	47,472	34,101	37,753	52,084	13,741	-
KOSDAQ지수	510.69	500.18	523.76	502.31	508.31	508.83	0.10%	1.73%
외국인 순매수(억원, 기간중)	228,939	△95,731	30,680	1,465	△324	1,749	2,073	-

※ 기간중 : '10말('10.1.1~12.31), '11말('11.1.1~12.31), '12.9말('12.9.1~9.30),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환율

구 분	'10말	'11말	12.9말	10.30	10.31	11.1	전일비	'11말비
₩/US\$	1,134.80	1,151.80	1,111.40	1,091.50	1,090.70	1,092.30	0.15	△5.17
선물환(NDF, 1월물)	1,137.00	1,154.70	1,113.40	1,093.50	1,092.60	1,094.10	0.14	△5.25
₩/CNY	170.43	182.29	176.83	174.87	174.82	175.09	0.13	△3.95
₩/EUR	1,501.68	1,488.93	1,436.60	1,407.05	1,413.44	1,415.51	0.15	△4.93
₩/¥100	1,393.59	1,481.22	1,435.36	1,373.82	1,370.74	1,365.20	△0.40	△7.83
¥/US\$	81.43	77.76	77.43	79.45	79.57	80.01	0.55	2.89
US\$/EUR	1.3233	1.2927	1.2926	1.2891	1.2959	1.2959	0.00	0.25
CNY/US\$	6.6100	6.3248	6.2893	6.2457	6.2406	6.2394	△0.02	△1.35

※ '11년 평균 환율 : (₩/US\$) 1,108.8원 (₩/¥100) 1,388.2원 ※ '12년 평균 환율('12.1.1~현재) : (₩/US\$) 1,135.1원 (₩/¥100) 1,431.9원

국제금리 · 주가 · 가산금리

구 분	'10말	'11말	12.9말	10.30	10.31	11.1	전일비	'11말비
LIBOR(Dollar, 3월, %)	0.30	0.58	0.36	0.31	0.31	-	0.00	△0.27
T/NOTE(10년, %)	3.29	1.88	1.66	-	1.70	-	△0.02	△0.19
DOW	11,578	12,218	13,437	13,107	13,096	-	△0.08%	7.19%
NIKKEI	10,229	8,455	8,870	8,842	8,928	8,947	0.21%	5.81%
SANGHAI COMP	2,808	2,199	2,086	2,062	2,070	2,104	1.66%	△4.32%
외평채가산금리(bp, '13년물)	175	165	74	67	68	-	1	△97
CDS(5년, bp)	95	161	86	71	68	68	0.00	△93
CRS(1년, %)	1.43	2.05	2.08	2.02	2.04	2.02	△0.02	△0.03

유가 · 곡물 · 원자재

구 분	'10말	'11말	12.9말	10.30	10.31	11.1	전일비	'11말비
DUBAI(\$/배럴)	88.80	104.89	110.56	106.85	106.91	106.81	△0.09%	1.83%
WTI 선물(\$/배럴)	94.84	98.83	92.10	85.68	86.24	87.09	0.99%	△11.88%
Brent 선물(\$/배럴)	94.75	107.38	112.39	109.08	108.70	108.17	△0.49%	0.74%
원당(센트/파운드)	32.12	23.3	19.6	19.56	19.46	19.38	△0.41%	△16.82%
밀(센트/부셀)	794	653	903	857	865	869	0.46%	33.05%
콩(센트/부셀)	1,403	1,208	1,601	1,534	1,547	1,559	0.74%	29.04%
옥수수(센트/부셀)	629	647	756	742	756	751	△0.63%	16.16%
동(\$/톤)	9,665	7,570	8,247	7,760	7,824	7,816	△0.11%	3.24%
알루미늄(\$/톤)	2,468	1,992	2,126	1,913	1,913	1,933	1.02%	△2.99%

※ '11년 평균 유가 : (Dubai) 105.91\$, (WTI) 95.12\$. ※ '12년 평균 유가('12.1.1~현재) : (Dubai) 109.45\$, (WTI) 95.47\$.

자료 : 일일경제지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P	2011 ^P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551,484	579,740	651,338	763,538	—
전국대비 구성비 ¹⁾	%	5.66	5.65	6.12	6.51	—
GRDP 성장률 ²⁾	%	7.6	7.0	8.9	12.8	—
1인당 GRDP	천원	28,482	29,826	33,381	36,786	—
산업구조 ³⁾	—					
농림어업	%	6.7	6.3	5.7	5.1	—
광공업		45.9	47.0	51.0	54.7	—
전기가스수도업		4.4	2.5	3.4	3.8	—
건설업		8.7	9.3	8.1	7.5	—
서비스업 및 기타		34.5	34.9	31.7	28.9	—
15세이상인구	천명	1,547	1,564	1,588	1,613	1,643
경제활동인구	천명	1,021	996	991	1,003	1,025
취업자	천명	998	973	961	974	1,001
농림어업	%	21.9	19.5	18.8	16.8	16.3
광공업		17.0	17.4	17.1	19.0	20.4
건설업		6.6	5.7	5.8	5.6	6.4
서비스업 및 기타		54.5	57.3	58.3	58.5	57.0
실업자	천명	23	24	29	29	24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6	568	597	610	618
경제활동참가율	%	66.0	63.7	62.4	62.2	62.4
실업률	%	2.2	2.4	3.0	2.9	2.3
고용률	%	64.5	62.2	60.5	60.4	60.9
무역수지	백만달러	21,149	13,380	20,299	29,161	26,314
수출액	백만달러	47,823	42,936	39,428	54,054	59,954
수입액		26,674	29,556	19,129	24,893	33,640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4.9	2.7	3.0	4.1

주 : 1) 당해년가격 2) 2005년 기준년가격 3) 당해년가격, 총부가가치(기초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천안시	80,888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138,471	162,116
공주시	16,926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21,492	23,473
보령시	19,340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19,690	22,149
아산시	71,873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126,325	161,532
서산시	35,540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81,233	76,993
논산시	15,979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20,403	22,735
계룡시 ¹⁾	2,340	2,726	3,058	3,195	2,947	4,368	4,319	4,058
당진시	22,797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57,866	60,282
금산군	9,532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13,945	14,297
연기군	12,353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20,241	21,095
부여군	10,585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12,809	14,201
서천군	10,770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13,512	13,633
청양군	5,759	6,033	6,183	6,346	6,412	7,155	6,703	6,646
홍성군	11,331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15,471	16,855
예산군	10,480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15,387	16,082
태안군	12,140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11,876	15,161
충청남도	348,631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579,740	651,338

주 : 1) 2003년 이전 : 계룡출장소

자료 :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충청남도.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0, %, p)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05=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09 09	123.1	1.4	4.8	1.4	97.9	0.9
10	124.6	1.2	7.2	3.0	98.7	0.8
11	125.9	1.0	9.0	4.5	99.4	0.6
12	126.6	0.6	9.8	5.3	99.5	0.2
2010 01	127.3	0.5	10.2	6.0	99.6	0.1
02	128.2	0.7	10.6	6.8	99.9	0.3
03	129.0	0.6	10.4	7.4	100.1	0.2
04	129.6	0.5	9.7	7.8	100.1	0.0
05	130.2	0.5	8.9	8.2	100.2	0.0
06	131.0	0.7	8.5	8.5	100.4	0.2
07	132.0	0.8	8.3	8.8	100.7	0.3
08	132.8	0.6	7.9	8.7	100.8	0.1
09	133.3	0.4	7.3	8.2	100.7	-0.0
10	133.3	0.0	6.0	7.3	100.3	-0.5
11	133.4	0.0	4.9	6.4	99.8	-0.4
12	134.3	0.7	5.3	6.2	100.0	0.2
2011 01	136.1	1.4	7.0	6.8	100.9	0.9
02	137.0	0.6	7.2	6.7	101.1	0.2
03	137.1	0.1	6.3	6.1	100.8	-0.4
04	137.2	0.0	5.3	5.6	100.3	-0.4
05	138.0	0.6	5.6	5.7	100.5	0.1
06	139.1	0.8	6.2	6.0	100.8	0.3
07	139.5	0.3	5.8	5.8	100.7	-0.1
08	139.7	0.1	5.2	5.3	100.4	-0.3
09	140.3	0.4	5.2	5.2	100.3	-0.0
10	141.0	0.5	5.4	5.3	100.4	0.1
11	141.6	0.4	5.3	5.2	100.4	-0.0
12	142.0	0.3	4.9	5.0	100.2	-0.2
2012 01	142.5	0.4	4.7	4.9	100.1	-0.1
02	143.1	0.4	4.7	4.9	100.1	0.0
03	143.0	-0.1	3.8	4.3	99.6	-0.6
04	143.8	0.6	4.3	4.4	99.7	0.2
05	145.2	0.9	5.4	4.9	100.2	0.5
06	145.8	0.5	5.4	4.9	100.3	0.1
07	146.1	0.2	5.0	4.7	100.1	-0.2
08	145.9	-0.1	4.0	4.2	99.5	-0.5
09	146.7	0.5	4.4	4.4	99.7	0.1

자료 : 2012년 9월 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2012.11.

시장경기동향

(기준지수=100)

구 분	업황		매출		자금사정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2009	68.0	79.1	60.5	78.0	63.6	77.6
2010	70.3	94.4	68.4	94.4	69.7	87.5
2011	65.6	94.4	63.1	94.8	67.9	91.0
2011 3/4	71.4	95.8	63.4	94.2	68.5	91.0
4/4	64.3	94.2	67.8	94.2	69.1	89.2
2012 1/4	48.2	87.2	51.8	85.1	49.8	81.9
2/4	64.7	80.3	64.9	91.1	62.9	75.1
3/4	58.6	78.5	58.7	80.5	53.2	70.9
2010 10	66.7	114.3	67.9	121.3	69.0	103.8
11	94.0	98.8	96.4	100.0	85.7	95.2
12	58.3	73.8	57.1	67.5	57.1	80.8
2011 01	39.3	79.3	36.9	86.3	53.6	79.8
02	53.6	81.0	48.8	76.2	66.7	89.3
03	71.4	115.5	75.0	109.5	72.6	102.4
04	84.6	109.5	77.2	120.2	70.3	100.0
05	70.7	100.9	67.3	92.2	70.7	93.1
06	60.1	76.7	58.3	87.6	67.7	87.3
07	63.1	88.8	46.7	88.0	60.6	84.8
08	65.6	96.7	58.1	86.5	66.9	92.4
09	85.5	101.9	85.3	108.2	77.9	95.9
10	69.7	102.2	71.2	104.9	72.8	91.7
11	63.5	93.2	65.5	91.9	65.0	86.3
12	59.7	87.3	66.6	85.7	69.5	89.5
2012 01	54.2	97.8	62.9	97.7	54.4	93.1
02	43.3	61.9	43.8	51.9	46.0	60.9
03	47.0	101.8	48.7	105.7	49.1	91.7
04	67.4	84.3	64.3	97.5	56.7	78.7
05	79.6	83.3	76.4	99.8	68.5	71.5
06	47.1	73.2	54.0	76.1	63.6	75.0
07	50.4	72.0	53.3	68.1	50.7	69.2
08	52.9	64.9	46.2	64.0	46.0	57.2
09	72.4	98.5	76.5	109.4	62.9	86.2
10	76.9	102.2	72.7	107.5	71.1	94.6
11	-	96.4	-	101.7	-	91.3

자료 : 월간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 경상판매액)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09	1,000,673	8.0	-	716,401	8.5	-
2010	1,095,097	9.4	-	796,956	11.2	-
2011	1,450,812	32.5	-	918,307	15.2	-
2011 3/4	366,540	32.1	4.6	246,878	13.0	10.9
4/4	378,808	29.2	3.3	223,078	14.6	-9.6
2012 1/4	378,000	6.5	-0.2	247,840	9.8	11.1
2/4	363,964	3.9	-3.7	230,878	3.7	-6.8
3/4	388,522	6.0	6.7	269,446	9.1	16.7
2010 09	98,800	16.8	13.3	76,561	27.6	9.7
10	87,095	-0.8	-11.8	61,530	4.4	-19.6
11	81,277	-4.9	-6.7	61,200	6.8	-0.5
12	124,757	33.7	53.5	71,890	11.9	17.5
2011 01	133,939	50.7	7.4	85,523	35.6	19.0
02	108,755	16.3	-18.8	69,975	-0.7	-18.2
03	112,386	28.3	3.3	70,159	12.7	0.3
04	111,521	37.4	-0.8	69,653	19.4	-0.7
05	121,238	33.1	8.7	78,018	17.3	12.0
06	117,625	43.1	-3.0	75,023	18.6	-3.8
07	124,762	36.4	6.1	84,338	17.1	12.4
08	114,166	30.9	-8.5	79,742	14.2	-5.4
09	127,612	29.2	11.8	82,798	8.1	3.8
10	124,339	42.8	-2.6	72,739	18.2	-12.1
11	114,856	41.3	-7.6	68,295	11.6	-6.1
12	139,613	11.9	21.6	82,044	14.1	20.1
2012 01	136,752	2.1	-2.0	90,781	6.1	10.6
02	116,618	7.2	-14.7	76,802	9.8	-15.4
03	124,630	10.9	6.9	80,257	14.4	4.5
04	119,552	7.2	-4.1	75,968	9.1	-5.3
05	127,364	5.1	6.5	81,100	4.0	6.8
06	117,048	-0.5	8.1	73,810	-1.6	-9.0
07	128,184	2.7	9.5	87,973	4.3	19.2
08	123,597	8.3	-3.6	88,229	10.6	0.3
09	136,741	7.2	10.6	93,244	12.6	5.7

자료 : 대형소매점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총 등록대수			차종별 등록대수			
	등록대수	전년동월차	전월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화물
2009 10	789,874	30,034	3,366	547,552	50,727	189,075	2,520
11	793,405	31,776	3,531	550,759	50,697	189,431	2,518
12	796,918	34,631	3,513	554,070	50,654	189,671	2,523
2010 01	799,644	34,175	2,726	556,506	50,627	189,979	2,532
02	802,175	34,944	2,531	558,906	50,573	190,154	2,542
03	805,400	36,195	3,225	561,742	50,576	190,533	2,549
04	809,436	37,547	4,036	565,070	50,575	191,237	2,554
05	812,325	37,360	2,889	567,579	50,577	191,606	2,563
06	815,377	36,510	3,052	570,488	50,479	191,838	2,572
07	819,864	38,223	4,487	574,616	50,498	192,165	2,585
08	822,465	39,188	2,601	576,924	50,478	192,472	2,591
09	826,121	39,613	3,656	580,147	50,490	192,878	2,606
10	829,848	39,974	3,727	583,435	50,494	193,296	2,623
11	833,491	40,086	3,643	586,724	50,473	193,666	2,628
12	834,391	37,473	900	587,662	50,401	193,685	2,643
2011 01	839,513	39,869	5,122	592,102	50,447	194,284	2,680
02	842,051	39,876	2,538	594,418	50,393	194,546	2,694
03	845,308	39,908	3,257	597,321	50,416	194,869	2,702
04	848,873	39,437	3,565	600,551	50,292	195,308	2,722
05	853,037	40,712	4,164	604,388	50,310	195,599	2,740
06	855,987	40,610	2,950	607,137	50,243	195,870	2,737
07	859,237	39,373	3,250	610,184	50,211	196,091	2,751
08	860,844	38,379	1,607	611,828	50,087	196,139	2,790
09	863,512	37,391	2,668	614,423	49,980	196,305	2,804
10	866,051	36,203	2,539	616,701	49,905	196,607	2,838
11	868,047	34,556	1,996	618,572	49,885	196,748	2,842
12	868,688	34,297	641	619,438	49,639	196,747	2,864
2012 01	874,019	34,506	5,331	624,415	49,661	197,073	2,870
02	877,054	35,003	3,035	627,119	49,576	197,463	2,896
03	879,550	34,242	2,496	629,387	49,500	197,761	2,902
04	881,916	33,043	2,366	631,481	49,485	198,031	2,919
05	884,348	31,311	2,432	633,644	49,474	198,298	2,932
06	883,775	27,788	-573	635,705	49,457	198,684	2,929
07	849,209	-10,028	-34,566	609,179	47,178	190,024	2,828
08	848,303	-12,541	-906	608,524	47,155	189,786	2,838
09	850,312	-13,200	2,009	610,556	46,946	189,962	2,848
10	852,628	-13,423	2,316	612,698	46,930	190,135	2,865

자료 : 시군별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09	97.1	2.7	96.7	2.0	81.6	5.7	97.2	2.8	96.6	2.3	97.1	2.7
2010	100.0	3.0	100.0	3.4	100.0	22.6	100.0	2.9	100.0	3.5	100.0	3.0
2011	104.1	4.1	104.6	4.6	106.1	6.1	104.0	4.0	104.2	4.2	104.4	4.4
2011 3/4	104.9	4.5	105.4	5.0	111.6	7.6	104.8	4.4	104.9	4.5	105.2	4.8
4/4	104.8	3.9	105.2	4.1	100.8	-8.3	104.7	3.8	104.9	4.0	105.3	4.3
2012 1/4	105.9	2.8	106.3	2.6	110.7	0.4	105.9	2.9	105.6	2.4	106.3	3.0
2/4	106.6	2.8	107.0	2.8	113.5	11.5	106.7	3.0	105.9	1.9	106.8	2.7
3/4	106.8	1.8	106.8	1.3	115.2	3.2	106.8	1.9	105.9	1.0	106.9	1.6
2010 10	101.1	3.7	101.5	4.4	116.6	37.4	101.1	3.5	101.1	4.2	101.2	3.8
11	100.6	3.0	100.5	3.3	106.7	31.2	100.6	2.9	100.6	3.3	100.7	3.1
12	101.1	3.2	101.2	3.6	106.4	26.8	101.1	3.1	101.0	3.4	101.1	3.4
2011 01	102.2	3.5	102.6	4.3	109.4	23.0	102.1	3.4	102.2	3.7	102.3	3.6
02	103.2	4.2	103.9	5.2	110.9	20.7	103.1	4.1	103.2	4.3	103.4	4.4
03	103.5	4.3	104.2	5.1	110.6	16.2	103.4	4.3	103.8	4.4	103.9	4.5
04	103.5	3.9	104.2	4.4	106.2	7.8	103.5	3.8	103.6	3.9	103.8	4.2
05	103.7	3.9	103.9	3.9	100.2	3.0	103.6	3.7	103.9	4.1	104.0	4.4
06	103.9	4.3	104.2	4.6	99.1	6.5	103.8	4.1	104.1	4.4	104.3	4.8
07	104.4	4.5	104.6	4.8	105.8	12.1	104.3	4.3	104.5	4.6	104.8	4.9
08	105.2	4.9	105.8	5.5	116.7	15.1	105.1	4.8	105.1	4.8	105.4	5.0
09	105.0	4.1	105.7	4.4	112.3	-3.5	104.9	3.9	105.0	4.0	105.3	4.5
10	104.7	3.6	105.2	3.6	103.5	-13.1	104.6	3.5	104.7	3.6	105.2	4.0
11	104.7	4.1	105.1	4.6	99.9	-6.8	104.6	4.0	104.9	4.3	105.2	4.5
12	105.0	3.9	105.4	4.2	99.0	-7.4	104.8	3.7	105.1	4.1	105.5	4.4
2012 01	105.5	3.2	105.9	3.2	106	-3.4	105.5	3.3	105.4	3.1	106.0	3.6
02	106.0	2.7	106.4	2.4	111.1	0.2	105.9	2.7	105.8	2.5	106.4	2.9
03	106.2	2.6	106.7	2.4	115.1	4.1	106.2	2.7	105.7	1.8	106.6	2.6
04	106.4	2.8	106.9	2.6	113.5	6.9	106.5	2.9	105.7	2.0	106.7	2.8
05	106.8	3.0	107.2	3.2	116.5	16.3	106.8	3.1	106.2	2.2	106.9	2.8
06	106.7	2.7	107.0	2.7	110.4	11.4	106.8	2.9	105.9	1.7	106.7	2.3
07	106.4	1.9	106.2	1.5	109.1	3.1	106.4	2.0	105.6	1.1	106.5	1.6
08	106.6	1.3	106.5	0.7	113.7	-2.6	106.7	1.5	105.7	0.6	106.7	1.2
09	107.4	2.3	107.7	1.9	122.9	9.4	107.4	2.4	106.5	1.4	107.5	2.1
10	107.2	2.4	107.2	1.9	118.8	14.8	107.3	2.6	106.4	1.6	107.2	1.9

자료 : 충청지역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09	39,428	-8.2	-	19,129	-35.3	-	20,299
2010	54,054	37.1	-	24,893	30.1	-	29,161
2011	59,954	10.9	-	33,640	35.1	-	26,314
2011 3/4	15,449	5.6	4.1	8,918	40.2	3.7	6,531
4/4	15,834	10.9	2.5	8,497	29.1	-4.7	7,337
2012 1/4	14,529	-8.2	5.1	8,687	2.2	13.9	5,842
2/4	14,805	1.9	-0.3	8,852	1.9	2.9	5,953
3/4	15,743	6.3	1.9	7,875	-11.0	-11.7	7,868
2010 10	4,994	24.6	4.0	2,031	13.2	-8.7	2,963
11	4,660	19.3	-6.7	2,147	21.1	5.7	2,513
12	4,619	18.1	-0.9	2,405	20.8	12.0	2,214
2011 01	4,733	29.3	2.5	2,556	40.9	6.3	2,177
02	4,220	15.6	-10.8	2,234	18.2	-12.6	1,986
03	4,872	10.7	15.5	2,835	38.8	26.9	2,037
04	4,868	11.7	-0.1	2,688	40.2	-5.2	2,180
05	5,022	12.0	3.2	2,781	44.3	3.5	2,241
06	4,957	7.9	-1.3	3,131	32.5	12.6	1,826
07	5,089	3.9	2.7	2,826	36.9	-9.7	2,263
08	4,925	-0.2	-3.2	2,867	38.4	1.5	2,058
09	5,435	13.2	10.4	3,225	44.0	12.5	2,210
10	5,510	10.3	1.4	2,834	39.6	-12.1	2,676
11	4,996	7.2	-9.3	2,741	27.7	-3.3	2,255
12	5,328	15.4	6.6	2,922	21.6	6.6	2,406
2012 01	4,564	-3.6	-14.3	2,781	8.8	-4.8	1,783
02	4,828	14.4	5.8	3,102	38.8	11.5	1,726
03	5,139	5.5	6.4	2,804	-1.1	-9.6	2,335
04	4,742	-2.6	-7.7	2,972	10.6	6.0	1,770
05	5,061	0.8	6.7	3,117	12.1	4.9	1,944
06	5,009	1.0	-1.0	2,764	-11.7	-11.3	2,245
07	5,134	0.9	2.5	2,398	-15.1	-13.2	2,736
08	5,049	2.5	-1.7	2,477	-13.6	3.3	2,572
09	5,567	2.4	10.3	2,996	-7.1	21.0	2,571
10	5,923	7.5	6.4	2,395	-15.5	-20.1	3,528

자료 : 지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고용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2009	991	-0.5	585	406	62.4	-1.3	74.6	50.5
2010	1,003	1.2	591	412	62.2	-0.2	74.1	50.5
2011	1,025	2.2	609	416	62.4	0.2	75.0	50.1
2011 3/4	1,044	0.8	616	428	63.4	-0.7	75.7	51.4
4/4	1,031	2.3	612	419	62.2	0.1	74.6	50.0
2012 1/4	991	2.9	595	396	59.0	-0.1	71.5	46.8
2/4	1,110	4.6	653	457	65.1	0.3	77.0	53.3
3/4	1,120	7.3	664	456	64.7	1.3	76.9	52.5
2010 10	1,033	-0.6	606	427	63.8	-1.4	75.7	52.1
11	1,020	2.2	602	419	62.9	0.4	75.1	51.0
12	968	3.1	579	389	59.5	0.8	72.1	47.3
2011 01	923	-0.9	558	365	56.7	-1.4	69.4	44.3
02	955	2.0	579	376	58.6	0.3	71.8	45.6
03	1,012	5.8	608	405	62.0	2.4	75.3	49.0
04	1,042	2.7	621	421	63.7	0.6	76.9	50.9
05	1,064	3.2	628	436	65.0	0.9	77.6	52.7
06	1,076	3.7	629	447	65.6	1.3	77.6	53.9
07	1,051	1.4	619	432	63.9	-0.3	76.2	52.0
08	1,043	1.1	619	424	63.3	-0.5	75.9	50.9
09	1,038	0.0	611	427	62.9	-1.3	74.9	51.2
10	1,066	3.1	624	442	64.5	0.7	76.3	52.8
11	1,041	2.0	615	425	62.8	-0.1	75.1	50.8
12	985	1.8	596	389	59.3	-0.2	72.4	46.4
2012 01	959	3.8	572	386	57.4	0.7	69.1	45.8
02	975	2.1	592	383	58.0	-0.6	71.1	45.2
03	1,041	2.8	622	419	61.7	-0.3	74.2	49.3
04	1,097	5.3	648	448	64.6	0.9	76.9	52.5
05	1,113	4.6	654	459	65.3	0.3	77.1	53.6
06	1,119	4.0	657	463	65.3	-0.3	76.9	53.8
07	1,129	7.4	664	465	65.5	1.6	77.2	53.8
08	1,112	6.6	664	448	64.2	0.9	76.9	51.5
09	1,119	7.7	663	455	64.4	1.5	76.5	52.3
10	1,128	5.8	664	464	64.7	0.2	76.3	53.1

자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연령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취업자		청장년층					고령층		
	합계	전년 동월(기)비	15-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2009	961	-1.2	7	131	212	253	112	74	61	112
2010	974	1.3	9	140	215	252	115	84	58	102
2011	1001	2.8	10	139	215	257	119	89	63	109
2011 3/4	1,021	1.4	11	136	214	260	120	92	67	122
4/4	1,009	2.8	8	136	219	263	120	93	63	107
2012 1/4	961	2.8	10	140	213	251	120	89	56	83
2/4	1,084	4.3	12	149	222	266	126	99	64	146
3/4	1,097	7.5	13	154	222	270	126	99	63	150
2010 10	1,005	-0.7	8	143	213	254	120	89	59	119
11	995	2.4	8	143	214	253	119	88	60	111
12	942	3.3	8	144	214	248	114	84	54	76
2011 01	899	0.9	11	143	212	242	107	80	47	56
02	924	3.1	12	142	213	243	110	79	56	68
03	982	5.3	13	137	213	249	116	85	63	107
04	1,017	2.8	10	140	213	257	118	91	67	122
05	1,046	3.9	8	143	216	261	124	91	70	135
06	1,057	4.1	9	142	220	264	127	91	69	136
07	1,027	2.0	12	141	217	256	120	90	66	124
08	1,019	1.3	13	134	209	261	122	92	67	122
09	1,016	1.0	7	133	216	261	119	93	68	119
10	1,038	3.3	7	135	218	267	123	93	69	128
11	1,023	2.8	8	137	222	264	122	92	64	115
12	965	2.4	10	136	216	259	116	92	56	80
2012 01	930	3.5	12	133	210	251	120	85	51	68
02	938	1.5	10	140	213	247	116	85	56	72
03	1,015	3.4	8	147	216	257	124	95	60	109
04	1,069	5.2	14	145	222	263	125	100	62	139
05	1,094	4.6	12	150	223	268	126	99	66	150
06	1,090	3.1	11	151	221	267	126	98	65	150
07	1,104	7.5	15	155	221	272	126	99	64	152
08	1,088	6.8	14	151	223	267	125	97	62	149
09	1,099	8.2	11	156	221	270	128	100	64	150
10	1,110	6.9	11	158	219	273	131	103	65	151

자료 : 행정구역별 연령별취업자,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합계	전년 동월(기)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운수 통신금융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2009	961	-1.2	181	164	93	56	188	179
2010	974	1.3	164	185	99	55	177	296
2011	1001	2.8	163	204	97	64	177	297
2011 3/4	1,021	1.4	182	205	93	66	177	299
4/4	1,009	2.8	152	215	93	71	185	293
2012 1/4	961	2.8	99	208	98	65	191	300
2/4	1,084	4.3	183	206	98	70	197	330
3/4	1,097	7.5	190	214	91	69	205	327
2010 10	1,005	-0.7	197	190	99	56	166	297
11	995	2.4	176	191	100	56	170	302
12	942	3.3	115	199	102	55	173	297
2011 01	899	0.9	90	196	103	52	170	289
02	924	3.1	108	197	102	56	172	289
03	982	5.3	159	196	103	60	172	293
04	1,017	2.8	182	201	98	62	172	301
05	1,046	3.9	206	201	99	63	173	305
06	1,057	4.1	205	200	99	67	179	308
07	1,027	2.0	185	201	94	63	180	305
08	1,019	1.3	181	205	92	66	180	295
09	1,016	1.0	180	207	94	67	171	297
10	1,038	3.3	189	213	92	70	180	295
11	1,023	2.8	162	217	93	70	187	294
12	965	2.4	105	214	95	72	189	290
2012 01	930	3.5	80	211	97	67	190	287
02	938	1.5	82	208	98	63	191	296
03	1,015	3.4	136	205	98	67	191	319
04	1,069	5.2	176	203	96	70	192	332
05	1,094	4.6	188	209	99	70	199	330
06	1,090	3.1	186	205	98	71	202	329
07	1,104	7.5	188	212	94	67	213	331
08	1,088	6.6	188	212	91	70	209	319
09	1,099	8.2	194	219	88	72	195	332
10	1,110	6.9	189	217	90	75	207	331

자료 : 행정구역별 산업별취업자, 통계청.

실업률, 실업자

(단위 : 천명, %, %p)

구분	실업률				실업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2009	3.0	0.6	3.5	2.3	29	25.1	20	9
2010	2.9	-0.1	3.1	2.5	29	-2.4	18	10
2011	2.3	-0.6	2.4	2.2	24	-17.8	15	9
2011 3/4	2.2	-0.6	2.5	1.9	23	-20.1	15	8
4/4	2.1	-0.5	2.5	1.6	22	-16.4	15	7
2012 1/4	3.0	0.0	3.0	3.1	30	5.6	18	12
2/4	2.3	0.4	2.1	2.5	25	22.8	14	12
3/4	2.0	-0.2	2.0	2.0	23	-3.4	14	9
2010 10	2.7	0.0	3.1	2.2	28	1.1	19	9
11	2.4	-0.3	2.6	2.3	25	-6.4	15	10
12	2.6	-0.3	2.5	2.8	26	-6.6	15	11
2011 01	2.6	-1.8	2.6	2.6	24	-41.3	15	9
02	3.3	-1.0	2.4	4.6	31	-21.8	14	17
03	3.0	0.5	2.8	3.2	30	24.5	17	13
04	2.4	-0.1	2.4	2.4	25	-0.8	15	10
05	1.7	-0.8	1.7	1.7	18	-28.1	11	7
06	1.7	-0.4	1.6	1.8	19	-15.5	10	8
07	2.3	-0.6	2.5	1.9	24	-18.9	16	8
08	2.3	-0.1	2.6	1.8	24	-6.0	16	8
09	2.2	-1.0	2.3	2.0	22	-31.9	14	8
10	2.6	-0.1	3.4	1.4	28	-1.8	22	6
11	1.7	-0.7	1.7	1.7	17	-30.5	10	7
12	2.1	-0.5	2.4	1.6	21	-19.5	14	6
2012 01	2.9	0.3	3.1	2.6	28	16.5	18	10
02	3.8	0.5	4.0	3.5	37	17.6	23	13
03	2.5	-0.5	2.0	3.1	26	-15.0	13	13
04	2.5	0.1	2.3	2.7	27	8.3	15	12
05	1.8	0.1	1.5	2.2	20	8.8	10	10
06	2.6	0.9	2.5	2.7	29	56.2	17	12
07	2.2	-0.1	2.2	2.1	25	3.3	15	10
08	2.1	-0.2	2.2	2.0	24	-0.4	15	9
09	1.7	-0.5	1.6	1.8	19	-14.3	11	8
10	1.6	-1.0	1.4	1.9	18	-33.9	10	9

자료 : 행정구역별 산업별취업자, 통계청.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09	0.32	0.47	0.28	0.27	0.36	0.01
2010	0.17	0.20	0.33	0.21	0.05	0.05
2011	0.29	0.42	0.24	0.14	0.64	0.00
2011 3/4	0.22	0.25	0.12	0.12	1.44	0.01
4/4	0.40	0.67	0.09	0.34	0.91	0.00
2012 1/4	0.15	0.26	0.02	0.20	0.00	0.01
2/4	0.38	0.23	0.00	0.00	0.26	0.00
3/4	0.24	0.13	0.22	0.03	1.05	0.02
2010 10	0.07	0.02	0.01	0.74	0.02	0.04
11	0.22	0.29	0.25	0.25	0.08	0.08
12	0.13	0.12	0.27	0.23	0.01	0.05
2011 01	0.20	0.16	0.73	0.14	0.11	0.00
02	0.17	0.09	0.92	0.08	0.00	0.01
03	0.87	1.39	0.43	0.05	0.36	0.00
04	0.10	0.17	0.10	0.00	0.00	0.00
05	0.12	0.21	0.04	0.06	0.11	0.00
06	0.12	0.25	0.02	0.00	0.00	0.00
07	0.19	0.34	0.00	0.22	0.00	0.00
08	0.18	0.27	0.06	0.15	0.65	0.02
09	0.28	0.14	0.31	0.00	3.67	0.01
10	0.39	0.61	0.06	0.13	1.93	0.00
11	0.74	1.33	0.18	0.41	0.60	0.00
12	0.08	0.07	0.04	0.48	0.21	0.00
2012 01	0.18	0.21	0.00	0.48	0.00	0.00
02	0.15	0.23	0.00	0.05	0.00	0.02
03	0.13	0.34	0.05	0.00	0.00	0.00
04	0.20	0.20	0.00	0.00	0.14	0.00
05	0.57	0.27	0.00	0.00	0.29	0.00
06	0.37	0.23	0.00	0.01	0.34	0.00
07	0.21	0.09	0.54	0.07	1.79	0.01
08	0.19	0.10	0.11	0.02	0.16	0.01
09	0.32	0.19	0.00	0.00	1.20	0.03
10	0.25	0.32	-	-	0.31	0.00

자료 : 대전충남지역어음부도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 %)

구분	건축허가(㎡)		건축착공(㎡)		토지거래(천㎡)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호수	전년동월(기)비
2009	7,203,977	-15.6	5,302,140	-7.1	270,249	35.1	189,970	-0.1
2010	6,636,749	-7.9	6,347,763	19.7	225,210	-16.7	141,946	-25.3
2011	9,980,356	50.4	8,895,818	40.1	192,976	-14.3	88,210	-37.9
2011 3/4	2,920,380	101.8	1,621,229	26.0	40,661	-1.9	19,828	-42.8
4/4	3,644,017	115.2	3,879,427	125.3	49,723	-32.4	20,765	-28.7
2012 1/4	2,438,824	70.8	2,355,123	79.0	45,709	2.7	20,407	-19.4
2/4	2,593,520	30.5	2,561,628	23.1	46,458	-20.0	18,401	-17.5
3/4	2,127,652	-27.1	1,540,403	-5.0	30,807	-24.2	18,187	-8.3
2010 10	400,493	-8.9	464,780	-3.0	19,172	23.3	10,285	-5.2
11	812,945	64.2	666,098	34.5	21,637	18.6	9,824	-4.5
12	480,231	-28.6	591,027	24.4	32,469	38.4	9,020	-8.2
2011 01	414,632	3.7	255,721	-2.1	14,265	-3.5	8,750	-37.3
02	403,350	-12.7	358,003	-12.7	12,164	-28.1	8,477	-35.7
03	610,148	13.4	700,517	-0.2	18,073	-11.3	8,082	-37.4
04	593,974	-6.9	724,923	33.7	20,501	-11.3	7,620	-41.3
05	723,947	22.4	700,162	14.9	18,041	11.01	7,459	-40.9
06	669,908	-22.7	655,836	-12.8	19,548	2.6	7,229	-42.2
07	522,989	-9.9	427,285	-7.4	15,056	-10.2	6,903	-43.5
08	1,504,930	208.9	456,491	5.6	13,713	-7.3	6,546	-43.5
09	892,461	135.0	737,453	87.6	11,892	20.2	6,379	-41.2
10	1,518,020	245.2	1,290,749	177.7	11,696	-38.9	5,903	-42.6
11	1,212,422	49.1	1,827,431	174.3	15,292	-29.3	7,391	-24.8
12	913,575	90.2	761,247	28.8	22,735	-30.0	7,471	-17.2
2012 01	558,630	34.7	507,442	98.4	12,571	-12.3	7,159	-18.2
02	714,587	77.2	1,023,484	185.9	14,206	18.9	6,746	-20.4
03	1,165,607	91.0	824,197	17.7	18,932	14.7	6,502	19.5
04	816,591	37.5	1,083,638	49.5	14,986	-15.7	6,180	-18.9
05	827,663	14.3	595,332	-15.0	13,931	-22.8	6,065	-18.7
06	949,266	41.7	882,658	34.6	17,541	-8.2	6,156	-14.8
07	528,696	1.1	475,662	11.3	12,085	-36.8	6,035	-12.6
08	878,978	-41.6	624,679	36.8	10,470	-21.4	5,965	-8.9
09	719,978	-19.3	440,062	-40.3	9,252	-18.9	6,187	-3.0
10	482,405	-68.2	437,787	-66.1	13,496	1.3	-	-

자료 :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미분양주택현황, 국토해양부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2011.6=100.0)

구분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09 10	96.2	-0.5	0.5	93.0	100.0	98.3	90.2	0.0	0.3	86.7	92.9	96.3
11	96.3	-0.3	0.1	93.2	100.0	98.3	90.4	0.0	0.3	87.0	93.1	96.3
12	96.3	0.0	0.0	93.3	100.0	98.3	90.5	0.3	0.1	87.2	93.1	96.3
2010 01	96.3	0.3	0.0	93.4	100.0	98.3	90.6	0.8	0.1	87.3	93.2	96.3
02	96.4	0.6	0.1	93.6	100.0	98.3	90.8	1.4	0.2	87.6	93.2	96.3
03	96.6	0.9	0.1	93.8	100.0	98.3	91.2	2.0	0.5	88.1	93.8	96.4
04	96.4	0.8	-0.1	93.9	99.5	98.7	91.7	2.8	0.5	88.3	94.6	96.6
05	96.5	1.0	0.0	93.9	99.5	99.0	92.5	3.6	0.9	88.7	95.9	97.2
06	96.5	1.1	0.0	94.0	99.5	99.2	92.5	3.7	0.0	89.1	95.5	96.9
07	96.5	1.1	0.0	94.0	99.5	99.2	92.6	3.6	0.1	89.6	95.5	96.9
08	96.3	1.0	-0.2	94.1	98.9	99.2	92.8	3.7	0.2	90.1	95.5	97.0
09	96.4	0.7	0.0	94.2	98.9	99.4	93.6	4.1	0.9	90.6	97.0	97.6
10	96.4	0.3	0.0	94.3	98.9	99.4	94.4	4.6	0.8	91.1	98.2	98.6
11	96.6	0.3	0.2	94.6	98.9	100.0	94.7	4.7	0.4	92.0	97.9	99.1
12	96.7	0.4	0.1	94.8	98.9	100.0	95.1	5.1	0.4	92.7	97.9	99.1
2011 01	96.8	0.5	0.1	95.0	98.9	100.0	95.5	5.4	0.4	93.4	98.0	99.1
02	97.1	0.7	0.3	95.5	98.9	100.0	96.2	5.9	0.7	94.3	98.4	99.2
03	97.8	1.3	0.8	96.4	99.6	100.2	97.3	6.6	1.2	95.8	99.1	99.5
04	98.8	2.5	1.0	97.8	100.1	100.3	98.7	7.6	1.4	97.7	100.1	99.8
05	99.5	3.2	0.7	99.1	100.1	100.5	99.5	7.6	0.8	99.1	100.1	99.9
06	100.0	3.6	0.5	100.0	100.0	100.0	100.0	8.1	0.5	100.0	100.0	100.0
07	100.7	4.4	0.7	100.9	100.5	100.2	101.0	9.1	1.0	101.0	101.0	100.4
08	101.6	5.5	0.8	102.2	100.9	100.2	102.3	10.3	1.3	102.9	101.5	100.5
09	102.5	6.4	0.9	103.4	101.3	101.4	103.5	10.6	1.2	104.5	102.1	102.7
10	103.4	7.2	0.9	104.8	101.3	101.7	104.6	10.9	1.1	106.3	102.1	102.7
11	104.4	8.1	1.0	106.5	101.3	101.7	106.2	12.1	1.5	108.9	102.1	102.7
12	104.8	8.4	0.4	107.2	101.3	101.7	106.8	12.3	0.6	109.9	102.1	102.7
2012 01	105.3	8.8	0.5	108.0	101.1	101.7	107.5	12.7	0.6	111.0	102.2	102.7
02	105.7	8.9	0.4	108.6	101.1	101.9	108.1	12.5	0.6	111.9	102.2	102.7
03	106.4	8.8	0.6	109.6	101.2	102.2	109.0	12.0	0.8	113.1	102.2	103.3
04	107.5	8.8	1.0	110.3	101.2	102.5	110.3	11.8	1.2	115.2	102.2	103.6
05	108.0	8.5	0.5	112.3	101.1	102.7	111.0	11.5	0.6	116.3	102.1	103.9
06	108.6	8.6	0.6	112.8	101.1	103.6	111.5	11.5	0.5	116.9	102.4	104.6
07	109.3	8.5	0.7	113.8	101.2	104.0	112.6	11.5	1.0	118.3	102.7	105.8
08	109.7	8.0	0.4	114.3	101.3	104.8	113.2	10.7	0.5	118.9	103.1	107.0
09	110.3	7.6	0.5	115.1	101.4	105.6	114.1	10.2	0.8	120.1	103.2	107.7
10	110.8	7.2	0.5	115.2	101.3	106.2	115.2	10.1	0.9	121.9	103.2	108.6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2012년 충남산업인력양성사업 교육

- 때 · 곳 : 2012. 12. 6 ~ 12. 7 10:00~18:00 / 충남TP 자동차센터
- 대 상 : 자동차부품 개발, 설계, 품질확인(신뢰성) 담당자
- 목 적 : 자동차 전장부품 등의 개발 및 설계, 품질확인(신뢰성)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활용분야 : 전장분야, 전자분야 진동 및 무연솔더 신뢰성 평가방법 및 시험
- 주요내용 : 진동시험의 목적 및 신뢰성 평가사례 / 무연솔더 개요 및 접합 신뢰성의 이해
- 교육인원 : 30명 (참가비 무료)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TEL 041-331-8021 FAX 041-331-8030 E-MAIL jkk0207@ctp.or.kr

「2012 중소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희망업체 모집

- 신청 및 접수 : 연중(지원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 지원 대상 : 충청남도내 본사나 공장이 있는 제조업체로서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 제외지역 : 아산시 및 보령시 소재기업은 시에서 별도 진행
- 지원 내용
 - 통역서비스 : 찾아오는 바이어 상담 및 안내, 계약체결 등
 - 번역서비스 : 수출입계약서(각종 Letter 포함), 제품 카탈로그, 수출 홍보물 및 무역(국제규격) 관련서류 등
- 지원 한도 : 업체당 연간 2백만원 이내 (한도내 수시 신청가능)
 - 지원한도 초과비용은 업체 부담

FTA활용 전략지역 타깃마케팅 지원사업 참여희망업체 모집

- 신청대상 : 충청남도내에 제조시설 또는 본사 사무소를 둔 중소 수출제조업체
- 모집규모 : 70개 업체
- 모집품목 : FTA 既체결국가(46개 지역)의 수혜(관세인하)품목
-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공장이 소재한 중소 수출제조업체로서 전년도 연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로 해외경쟁력을 갖춘 업체
- 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 : 2012. 11. 30일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원 이영상 차장(041-539-4504, mayel@ctp.or.kr)으로 문의

신사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상설교육 희망자 모집

- **신청자격** : 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자(또는 관심있는 모든 사람)
 - **교육기간** : 2012. 11. 19 ~ 12. 6
 - **교육운영** : 주 4일 상설교육장 운영(교육비 무료)
 - **교육장소** : 소상공인진흥원 서울전용교육장(서울 종각)
 - **교육내용**
 - 기 발굴된 신사업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실무부터 점포 운영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실전창업교육 실시
 - 소자본 창업시 유의사항 및 투자분석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자의 성공창업을 유도
 - 창업이후 점포운영시 필요한 마케팅 및 브랜드개발, 상표등록, 점포운영 및 관리 등 실무교육
 - **신청기간** : 2012. 11. 5 ~ 12. 6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idea@seda.or.k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원 지식서비스부(042-363-7611~2)로 문의

국제컨퍼런스 ‘행복한 삶 : 경제적 가치를 넘어’ 개최

- **때 · 곳** : 2012. 11. 30(금) 14:00 / 리베라호텔 다이너스티홀(대전 유성)
 - **주관/주최** : 충남발전연구원 / 충남발전연구원 · 한겨레경제연구소
 - **목 적** : 물질적 풍요로움의 측정지표인 GDP의 성장이 국민의 행복으로 직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진정한 ‘행복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진행흐름** : 개회식 → 주제발표 → 대담 → 폐회 및 만찬
- 〈주제발표〉
- ‘경제의 지역화 - 행복으로 가는 길’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생태와 문화를 위한 국제협회 대표 / 스웨덴-영국)
 - ‘국민 총행복(GNH) - 행복을 위한 발전’ : 카르마 치팀(부탄 국민총행복위원회 장관)
 - ‘일본의 웰빙 측정과 지표’ : 야오토 야마우치(일본 오사카대학 국제공공정책학과 교수)
 -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고승희(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발전연구원(041-840-1125)로 문의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2011. 4월호

일본 지진 피해로 인한 Display산업의 영향 분석
디스플레이서치코리아 정윤성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논의
충남발전연구원 이재현

2011. 5월호

충남 전략산업의 성장에 대한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홍성호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과 향후 논의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1. 6월호

FTA의 영향과 대응방향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충남의 항만 물동량 현황과 발전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7월호

SNS의 성장 잠재력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역할
KT경제경영연구소 송민정
충청광역경제권 협력의 필요성 및 대안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2011. 8월호

충남 녹색성장 실태와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2011. 9월호

지속가능경영의 이해와 효과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충남의 지식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10월호

충청광역경제권 지역산업의 현황 및 산업구조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재
인삼엑스포 이후를 생각한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하광학

2011. 11월호

충남 사업체고용동향조사 분석 및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 백운성 · 김양중 · 임형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1. 12월호

2012년 대전충청권 부동산시장 전망
목원대학교 부동산연구센터 조수희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2. 1월호

2012년 충청남도 경제정책 운영방향
충청남도 남궁영
우리나라의 물가구조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 임병철

2012. 2월호

2012년 충남 디스플레이산업 전망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황정현

2011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2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김윤아

2012. 3월호

경기종합지수의 개념과 지역경기종합지수의 필요성

전북발전연구원 최성환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제정 추진에 관한 일고찰

충남발전연구원 이민정

2012. 4월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평가체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재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충남지역 에너지소비구조 특성

충남발전연구원 이종윤

2012. 5월호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와 자치단체의 역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

충남지역의 소득불평등 측정 및 추이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2012. 6월호

유로존 재정위기 항방과 충남경제

포스코경영연구소 김영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위한 입지환경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2. 7월호

주택시장 변동요인과 충남 주택시장 영향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노동행정 통계로 본 충남지역 노동시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곽선아

2012. 8월호

충남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효율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2. 9월호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충남의 기후변화의 영향과 부문별 피해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2012. 10월호

국가통계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통계지리정보

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충남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성과

충남발전연구원 홍성호

2012. 11월호

최근 도시재생 및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정책변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새정부의 지방과학기술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Godbawee

The Healthy Alternative to Chips

"GODBAWEE seaweed snack is a way to treat yourself to a healthy and delicious snack."



갓 구워서 바삭바삭하고 위생적인 김

갓바위식품(주) T.041-931-2273 / F.936-2273 / www.godbawee.com

위 기업은 충청남도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광고를 지원합니다.